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1028-200000012471

貿易學碩士 學位論文

중-한 FTA와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Korea-China FTA and Export Expansion Strategies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to Korea

指導敎授 鄭 鴻 悅

2018 年 2 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貿 易 學 科

李 寧

本 論文을 李寧의 貿易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위원장 : 김 재 봉 (인)

위 원 : 정 홍 열 (인)

위 원 : 임 재 욱 (인)

2017 年 12月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dCollection @ kmou

목 차

List of Tables ····· ii
List of Figures ····· iii
Abstract ····· iv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1.3 논문의 기본구성 ····· 2

2. 중국의 농업정책과 농산물 무역 현황
2.1 중국의 농업정책 ····· 4
2.2 중국 농산물 무역현황 ····· 8

3. 중·한 농산물의 무역 현황과 경쟁력 비교
3.1 중·한 농산물 무역현황 ····· 23
3.2 중·한 농산물 경쟁력비교 ····· 25

4. 중·한 FTA 협정 분석
4.1 중·한 FTA 농산물 협정내용 ····· 35
4.2 중·한 FTA가 양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 43

5. 중국 농산물의 한국수출 확대 방안 ····· 51

6. 결론 ····· 57

<참고문헌> ····· 60

Collection @ kmou

List of Tables

Table 1 1985-2015 중국 농산물 수출액 비중 ····· 9
Table 2 2000-2015 중국 농산물 수입액 비중 ····· 11
Table 3 2001-2014 중국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 12
Table 4 2004-2014 중국, 주요 농산물 수입현황 ····· 14
Table 5 2002-2014 중국 농산물 수출 분포 ····· 16
Table 6 2004-2014 중국 농산물 수입 분포 ····· 17
Table 7 2001-2014 중국산 농산물 수출분포 ····· 18
Table 8 2004-2014 중국 농산물 무역방식에 따른 수입현황 ····· 19
Table 9 한국 분류농산물 관세수준 ····· 24
Table 10 한국 농산물 관세수준 ····· 25
Table 11 중국의 곡물과 채소 대한국시장 수출입현황과 점유율 ····· 27
Table 12 2013—2015 중국 곡물과 채소 TC지수 ····· 29
Table 13 2014년 중국과 한국의 주요농산물 품목별 수출액 ····· 31
Table 14 2015년 중국과 한국의 품목별 수출액 ····· 31
Table 15 중국과 한국의 농산물 품목별 ESI 지수 ····· 31
Table 16 중 · 한 FTA에서 상품 양허 결과 ····· 36
Table 17 중 · 한 FTA 한국 측 농산물 양허결과 ····· 37
Table 18 중 · 한 FTA 중국 측 농산물 양허결과 ····· 39
Table 19 한FTA 농산물 양허협상 식량작물 결과 (상세) ····· 39
Table 20 중 · 한 FTA 농산물 양허유형 (세번 수 기준) ····· 41
Table 21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액 ····· 44
Table 22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액 ····· 45
Table 23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액 ····· 46
Table 24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액 ····· 46
Table 25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국 순위 ····· 47
Table 26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국 순위 ····· 48

Collection @ kmou

List of Figures

Fig. 1 1985-2015 중국 농산물 무역 추세 ····· 8
Fig. 2 1985-2015 중국 농산물 무역과 RMB 환율 변동상황 ····· 20
Fig. 3 중·한 농산물의 무역액 변화 ····· 23
Fig. 4 중국의 대한국 RCA지수 추이 ····· 34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1945
한국해양대학교

Collection @ kmou

A Study on Korea-China FTA and Export Expansion Strategies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to Korea

LI, NI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oday, the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is attracting more and more countries' attention due to its small scope of cooperation, easier negotiation and implementation.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8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have made countries pay more attention to cooperation. In recent years, China has signed many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and has fully enjoyed the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South Korea and China are near with each other geographically and have similar culture and customs which lay the foundation for the signing of the China-Korea FTA. China—Korea FTA was launched to be negotiated in May in 2012 and was finally signed on June 1 in 2015 through countless times of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The agricultural sector as both important and sensitive industries , became the focus of the whole negotiation process.

In agricultural trade among China and South Korea, the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are in a relatively weak position. Therefore, South Korea has been taking strict protection policy. South Korea is China's important trading partner

Collection @ kmou

and important agricultural export market, So the signed China—Korea FTA may have a great impact on Chinese agricultural exports to South Korea.

Yet compared with South Korea and China rapidly developing trade relations, the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s trade is relatively slow. As a result, it is imperative to speed up further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Starting with the data of agricultural trade of South Korea and China, the current situation, structure and factor of agricultural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ve been mainly analyzed, and existing problems of agricultural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ve been studied further in this paper, by which rational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put forward.

Key words: China and South Korea, FTA, Agricultural products, Commercial trade, Vegetables, Comparative Advantage.

Collection @ kmou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중국의 농산물 무역은 총체적으로 이에 부합한 발전이론이 필요하다. 중국경제의 공업화와 도시화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농산물 무역에 구조적 변화가 생겨났고, 이는 중국 농산물 수출입의 비대칭 성장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공업화,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은 농산물 수요의 증가와 자원규제의 증가의 라는 모순으로 인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 국외 농산품 수출입, 외국 농업자원의 이용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전 세계 다국적 무역시스템의 끊임없는 발전의 배경 하에 지역 무역협정의 체결은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지역협정의 과정 중 농업 영역은 각 국가가 피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일정한 수준에서 자유무역협정의 깊이와 범위를 정해야한다.

중국과 한국은 1992년 수교를 채결한 이후 농산물 무역의 급속한 발전을 이뤄 양국 무역액의 현저한 증가를 이루고, 양국간 농업협력의 튼튼한 기초를 다져왔다. 그러나 고액의 관세, 무역장벽과 국제경쟁 등 여러 문제들이 양국 농업협력의 강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그런 까닭에 중국과 한국은 2001년부터 FTA 채결을 준비하여 2016년 중국과 한국 양국의 지도자들이 FTA체결을 선포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기본 국가정책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현 단계에서의 중국과 한국 농산물 무역의 실태를 분석하고 미래의 농업 수출 발전

Collection @ kmou

방법에 대해 분석한 후 그 의미와 시사점을 견해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중국과 한국 양국 농산물 무역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기위해 비교 분석법 및 도표 등을 통해 비교분석하고, 표준모형을 활용하여 양국 농산물 무역의 장단점을 비교분석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 농산물 무역의 발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중국 농산물 무역발전에 참고가 될 것이다.

중국과 한국 무역의 상호보완성과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을 본 연구의 기본 틀로 삼고, 이를 기존자료와 결합하여 중국과 한국 무역에 존재하는 문제를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활용하였고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해 가능한 자료를 수집, 정리, 가공하였다.

1.3 논문의 기본구성

분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을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농업정책 현황과 중국농산물 환율변동이 농산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한 FTA의 협정과 농산물 무역 실태를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농산물의 특징과 농업정책 그리고 중·한 농산물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양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무역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국제시장점유율 분석, 무역경쟁력 데이터 분석, 현시비교우위지수의 방법을 이용하여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증명하였다.

Collection @ kmou

제4장에서는 중·한 FTA 체결이 농산물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한 자유무역의 모델과 장애요인을 중점 설명하고 양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중 발생한 폐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과 앞으로의 중국농산물 시장이 한국으로의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6장이 결론.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1945
한국해양대학교

Collection @ kmou

제 2 장 중국의 농업정책과 농산물 무역현황

2.1 중국의 농업정책

중국이 1949년 공산당 정권을 수립한 이후 농업에 대한 정책 기조는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농촌을 희생시키는 것이었다. 공산당 정부의 계획경제로 인한 공업화 정책으로 농촌은 더욱 피폐해졌다. 이에 많은 실무 파들은 등소평 (鄧 小 平)중심으로 1978년 정권을 장악하고, 개혁개방 정책의 시작과 더불어 향진기업의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향진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중국 현대화의 최고 모순 이라고 불리는 삼농 (三 農) 문제의 해결에 있었다.[1)]

1978년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의 경제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세계 경지 면적의 7%로 세계 20%인구의 식량 문제를 해결 했는데 이는 실로 대단한 것이다.

1978년에 비해 2012년에는 농축산업의 생산액이 64배 증가하였지만 국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하락했다. 농축수산업의 산업구조 또한 변화하여 농업의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지만, 축산업과 수산업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30여년간 중국의 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했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출현한 농촌실업인구의 급증, 도농간 수입 격차 확대, 농업용수 부족,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고도 경제성장과 동반되는 농업부문의 문제 역시 중국 사회의 뜨거운 화제 중 하나이다.[2)]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맞춤형 정책의 실시가 더욱 중요해졌다. 중국정부

---

1) 중국의 미래는 현 4 세대 지도부가 농민·농촌·농업 문제, 즉 삼농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심각한 도농 소득격차와 이주의 자유를 억제하는 호구제 등으로 농민 등 극빈층의 불만은 팽배해지고 있다.

2) 人民日报. “改革开放中国经济发展成就“, 2013.11.21

Collection @ kmou

는 점진적으로 세 가지 농업의 투자를 확대, 농민 우대정책을 강화하고 식량 증산정책을 실시해야했다.[3)]

그리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정부는 농업세 폐지, 농업보험금 보조, 4대 (식량생산보조금, 농기계 매입 보조금, 우량종자 보조금, 농자재 종합 보조금) 보조금 실시와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농업생산이 많은 나라이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농촌 노동력을 보유하여서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다. 중국의 경지면적은 122만km2, 전체 중국면적의 13.5%를 차지한다. 2015년 중국 농촌인구의 비중은 43.9%였다. 농업부문에서 GDP 의 비중은 9.2%를 차지하여 한국보다 높았다. 2015년 한국의 농업부문 GDP의 비중은 1.9%였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문제는 경제 발전 중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4)]

중국은 WTO에 가입 후 농업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전의 저가격, 대량생산에서 점진적으로 고품질, 기술, 녹색 농업으로 변했다. 정책변화 후 생산효율이 증가하고 농촌부문의 산업구조가 조정되고, 농촌의 생활상이 개선되었고, 농민의 소득 증가했다. 그리고 사회간접 자본의 농촌으로의 이동이 증가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이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농업 구조의 조정이다. 중국정부는 식량작물의 안전한 증산과 동시에 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농업의 구조 개선에 노력했다.

두 번째는 농업 생산능력의 증가이다. 농업 생산능력의 증가는 신농촌 건설의 교두보로서 도농간 수입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농촌생활을 더욱 부유 하게 만들고 추가적인 부가가치, 생산을 통해 농촌산업의 기초를 강화시킨다.

세 번째는 농촌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환경 보호정책의 실시이다. 중국 정부는 농산물 생산량의 확대와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에너지와 교통부문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추진했다. 게다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환경보

3) 中国网. “推进农村综合改革“, 2008.2.13, www.china.com.cn
4) 牛盾, 中华人民共和国农业部『中国农产品贸易发展三十年』,2009

Collection @ kmou

호 정책을 실시했다.

20세기에 들어 세계경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대외개방을 추진해야한다. 시간순서에 따라 개혁개방 이래로 농업무역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79년에서 1999년까지 수출을 통한 외화가득 단계이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주요농업 수출 풋목들은 농산물과 부업 생산물이었다. 국가는 농산물 수출의 외화 가득 일정량을 독점하려고 했지만 농업무역의 발전은 비교적 완만하여 1978년 농산물 및 가공품 수출액은 겨우 61.05억 달러에 불과했다.[5)]

개혁개방 초기가 되어 농산물은 계속해서 수출외화 가득의 중요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중국은 계속해서 농산물의 대외무역을 독점하였고,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동시에 수요의 탄력성이 비교적 큰 농산물 수입은 제한했다. 그래서 농산물 무역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 농업 무역 자유화의 추세 중에 중국 농산물 무역은 반드시 수출 외화가득의 완만한 발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중국 농산물무역 총액은 268.9억 달러에서 한때 218.7억 달러로 추락했다. 농업부문의 대외무역의 의존도는 18.5%에서 12.2%로 하락하였고, 농업의 대외개방 수준은 중국국민경제의 개방 수준의 낙후를 명확히 암시해주고 있다.[6)]

두 번째 단계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전면적 개방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중국 시장경제 제도의 점진적인 도입과 세계무역 기구들에 가입 함 에 따라 중국은 농산물 수입관세를 낮추고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없애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며 농산물 무역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된다.

1999년 대비 2015년에 중국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218.7억 달러에서 1,875.6억 달러로 연평균 19.7% 성장하였고, 농업의 대외무역의 존도는 12.2%에서 20.2%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농산물 수입은 세계 제3위를 차지

5) 华中农业大学学报, (社会科学版), (总109期) 2014
6)『中美农业合作协议』, 1999.4.10

Collection @ kmou

하고 수출은 세계 5위를 차지했다.[7)]

중국은 인구가 12억5천만으로 세계 인구의 24.3%를 차지하는 인구대국이다. 따라서 중국 농산물의 주요시장은 국내시장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첫째, 국내수요는 주로 국내 수매에 의존하며, 둘째, 농산물의 주요 판로 역시 국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품목, 지역, 년도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나타낸다. 개혁·개방 정책의 도입에 따라 80년대 이래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계속 증가하여 왔다.

중국의 농산물 무역의 주요 특징은 첫째, 농산물 수출과 수입의 증가 속도가 국가 총수출과 수입의 증가 속도에 비해 낮다. 1980년부터 1998년까지, 18년간 중국의 수출은 10배 이상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5.6%에 이르나, 농산물 수출은 3.3배 증가하여 연평균 2.9%의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중국의 총 수입액은 이 기간에 7배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4.7%를 보인 반면, 농산물 수입은 약 2배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1.6%에 불과하였다. 둘째, 농산물 교역액이 전체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전체 교역 중 농산물 교역액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1980년에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의 24.1%를 차지하였으나 차츰 하락하여 1995년에는 10.6%, 그리고 1998년에는 8.0%까지 감소하였다. 수입의 경우 80년 농산물 수입이 전체수입의 31.1%를 차지하였으나 차츰 하락하여 1995년에는 10%이하로 줄어들었고, 1998년에는 8.5%로 감소하였다. 한편 무역수지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에는 1982년과 198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1990년부터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8)]

---

7) 农产品期货网, “中国农产品贸易影响因素分析及趋势展望“, 2017.5.3

8) 『중국농산물의 무역동향』,한국과 중국은 1992년부터 외교관계를 맺었다. 당시의 농산물 무역 총액은 10.4억 달러였었고, 1997년에는 13.7억 달러로 5년의 무역총액이 겨우 3.3%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2002년은 양국간 농업무역의 전환점이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농업무역 총액은 20.5억 달러로 92.3%가 증가하였고,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다 한중 농업무역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중국의 각종 농산물이 한국의 농업시장을 점거했다. 2005년 한국이 수입한 중국의 농산물 총액은 28.7억 달러로 2004년에 비해 30.3% 증가했다. 2010.11.5.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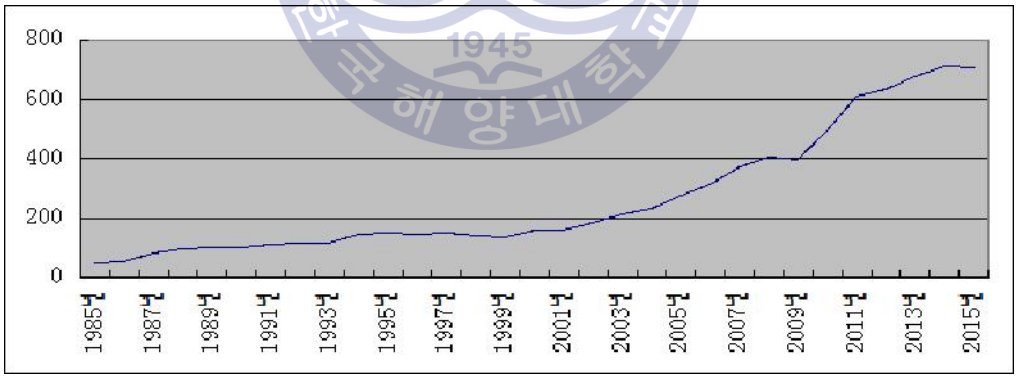
Collection @ kmou

중국이 다양한 국가와 FTA 체결이 실현되고 나면 교역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대 중국 농산물 수출 증대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상호보완적인 품목에 대하여 상대국 농산물 수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농산물 무역문제로 마찰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하며, 중국이 FTA에 가입하고 나면 차기 농산물 협상 등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협력해야 할 사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2 중국 농산물 무역현

1978년 중국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81.3억 달러이다. 그해 중국의 수출입 무역 총액은 206.4억 달러로 농산물 무역액은 수출입 무역 총액의 3.9%를 차지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해마다 상승추세를 나타냈다. 9)

Fig.1 1985-2015 중국 농산물 무역 추세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 농산물 수출입 통계》 정리계산

2001년 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160.9억 달러,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279.4억 달러로 농산물 수출액이 수출입 총액의 57.6%를 차지했다. 그해 중국 수

9) 农产品期货网,“中国农产品贸易影响因素分析及趋势展望“, 2017.5.3

Collection @ kmou

출무역 총액은 2,660.9억 달러로 농산물 수출액이 중국 수출총액의 6.0%를 차지했다. 2006년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636.0억 달러에 이르렀고, 그 중 수출액은 314.2억 달러로 49.4%를 차지했다. 그해 중국 수출액은 9,689.78억 달러로 농산물 수출액이 중국 수출총액의 3.2%를 차지하였다. 그 후 농산물 수출액은 2001년의 160.9억 달러에서 2015년 706.8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2.4배 증가한 것이다. [10)]

2.2.1 중국 농산물 수출입액 비중

Table 1 는 1985년에서 2015년까지 중국 농산물 수출액이 농산물 무역총액 및 중국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Table 1 1985-2015 중국 농산물 수출액 비중

단위: 억 달러

년도	수출액(A)	수출입 총액 (B)	수출 비율 $(\frac{A}{B}\times 100)$	수출 총금액 (C)	수출 비율 $(\frac{A}{C}\times 100)$
1985	45.2	65.9	68.6%	273.5	16.5%
1986	53.0	77.7	68.2%	309.4	17.1%
1987	82.0	123.3	66.5%	394.4	20.8%
1988	97.0	154.4	62.8%	475.2	20.4%
1989	100.5	171.9	58.4%	525.4	19.1%
1990	101.4	159.5	63.6%	620.9	16.3%
1991	109.3	163.9	66.7%	719.1	15.2%
1992	113.1	166.0	68.1%	849.4	13.3%
1993	114.3	153.9	74.2%	917.4	12.4%
1994	142.9	214.4	66.7%	1210.1	11.8%
1995	147.1	268.9	54.7%	1487.8	9.9%
1996	143.4	251.8	56.9%	1510.5	7.8%
1997	150.7	250.8	60.1%	1827.9	8.2%
1998	139.1	222.8	62.4%	1837.1	7.6%
1999	136.3	218.7	62.3%	1949.3	7.0%
2000	157.0	269.7	58.2%	2492.0	6.3%
2001	160.9	279.4	57.6%	2661.0	6.0%

10) 《중국 농산물 무역현황에 미래의 분석》, 2017.5

Collection @ kmou

2002	181.6	306.3	59.1%	3256.0	5.6%
2003	213.3	403.0	52.9%	4382.3	4.9%
2004	233.9	514.4	45.4%	5933.3	3.9%
2005	276.0	563.8	49.0%	7619.5	3.6%
2006	314.2	636.0	49.4%	9689.8	3.2%
2007	370.1	782.0	47.3%	12204.6	3.0%
2008	405.3	993.3	40.8%	14307.0	2.8%
2009	396.3	923.3	42.9%	12016.1	3.3%
2010	494.2	1219.9	40.5%	15777.5	3.1%
2011	607.7	1556.6	39.0%	18983.8	3.2%
2012	632.9	1757.7	36.0%	20487.1	3.1%
2013	678.3	1687.0	40.2%	22090.0	3.1%
2014	713.4	1928.2	37.0%	19592.4	3.6%
2015	706.8	1875.6	37.7%	16641.1	4.2%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 농산물 수출입 통계》를 기초로 작성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성장폭은 크지 않았지만, 2003년 이후부터 성장폭이 확연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폭적인 성장의 추세는 2008년까지 계속되었다.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2009년 중국 농산물 수출액과 수출입 총액은 하락하였고, 2008년 405.3억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396.3억 달러로 내려갔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세계 주요 경제의 회복으로 2010년 중국 농산물의 수출은 또다시 원래의 성장수준으로 돌아갔다. 게다가 추후 몇 년간의 발전 형태도 좋았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국민소득과 인구의 증가로 중국 농산물의 수요 역시 증가하게 했다. 그러나 노동 생산성과 중국 특유의 농업 현황이 규제를 받아 국내 농산물의 수요 변동이 심화되었다.

중국은 세계무역조직에 가입하여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추고 중국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점차 줄여나갔다. 이는 수입농산물의 시장화를 야기시켰다.

Collection @ kmou

Table 2 2000-2015 중국 농산물 수입액 비중

단위: 억 달러

년도	수입액 (A)	수출입액 (B)	수입 총액 (C)	수입과 수출입 총액 비중 ($\frac{A}{B}\times 100$)	수입과 수입액 비중 ($\frac{A}{C}\times 100$)
1985	20.7	65.9	422.5	31.4%	4.9%
1986	24.7	77.7	429.1	31.8%	5.8%
1987	41.3	123.3	432.1	33.5%	9.6%
1988	57.5	154.4	552.7	33.4%	10.4%
1989	71.4	171.9	591.4	41.5%	12.0%
1990	58.1	159.5	533.5	36.4%	10.9%
1991	54.6	163.9	637.9	33.3%	8.6%
1992	53.0	166.0	805.9	32.0%	6.6%
1993	39.5	153.9	1039.6	25.7%	3.8%
1994	71.5	214.4	1156.1	33.3%	6.2%
1995	121.8	268.9	1320.8	45.3%	9.2%
1996	108.3	251.8	1388.3	43.0%	7.8%
1997	100.1	250.8	1423.7	40.0%	7.0%
1998	83.7	222.8	1402.4	37.6%	6.0%
1999	82.4	218.7	1657.0	37.7%	5.0%
2000	112.7	269.7	2250.9	41.8%	5.0%
2001	113.8	279.0	2435.5	40.8%	4.7%
2002	180.2	304.3	2951.7	59.2%	6.1%
2003	189.3	403.6	4127.6	47.0%	4.6%
2004	280.3	514.2	5612.3	55.0%	5.0%
2005	287.1	562.9	6599.5	51.0%	4.3%
2006	320.7	634.8	7914.6	51.0%	4.0%
2007	410.9	781.0	9561.2	53.0%	4.3%
2008	583.3	985.5	11325.7	59.1%	5.1%
2009	525.5	921.3	10059.2	57.0%	5.2%
2010	725.5	1219.6	13962.4	59.5%	5.2%
2011	948.7	1556.2	17434.8	61.0%	5.4%
2012	1124.8	1757.7	18184.1	64.0%	5.8%
2013	1188.7	1866.9	19499.9	64.0%	6.1%
2014	1214.8	1928.2	19592.3	63.0%	6.2%
2015	1168.8	1875.6	12400.2	62.3%	9.4%

자료출처: 중국 상무부《 중국 농산물 수출입 통계》를 기초로 작성

Collection @ kmou

Table 2을 보면 중국농산물 수입총액은 상승 추세를 나타낸다. 1985년 중국농산물 수입액은 20.7억 달러에 이르렀고 1996년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4.9%의 성장율을 기록햇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수출총액 비중이 31.4%에서 43.0%로 상승했고, 동시에 중국 수입총액도 5%에서 9% 상승했다.

중국은 2001년 농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무역정책을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농산물 수입액의 대폭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01년의 113.8억 달러에서 2008년의 583.3억 달러로 5배 성장하였다. 농산물 수출입총액의 비중 40.8%에서 59.1%로 상승하였고, 중국 물품 수입총액의 5.1% 비중을 유지하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중국 농산물 수입액은 2009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2008년의 583.3억 달러에서 525.5억 달러로 하락했다. 그러다가 2013년 기준 중국 농산물 수입액은 1,188.7억 달러로 다시 성장했고, 중국 농산물 수출입총액의 64.0%에 이르렀다. 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1985년에 30억 달러가 안 되었지만 2015년 1168.8억 달러로 성장하여 30년 동안 56배의 성장을 이루었다.

2.2.2 중국 농산물 수출입 무역구조

지난 십 여 년 모든 농산물 수출상품 구조의 변화와 중국 농산물의 우세는 서로 부합한다. 중국 수출 농산물의 종류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가축 가금상품, 수산품 및 기타완제품, 야채과일류와 곡물류 등의 4가지 농산물을 대표로하여 살펴본다.

Table 3 2001-2014 중국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억 달러

년도	가금 품종		수산물과 수산가공제품		과일 채소류		식량 곡물류		합계
	수출 총액	증가율 %	수출 총액	증가율 %	수출 총액	증가율 %	수출 총액	증가율 %	
2001	2.4	-	25.9	-	17.5	-	10.3	-	56.2
2002	2.6	8.1	28.7	10.9	18.8	7.9	16.5	59.5	66.7
2003	3.3	23.8	33.4	16.0	21.8	15.8	25.9	56.9	84.3

Collection @ kmou

2004	5.6	72.2	40.6	21.7	25.4	16.4	7.4	-71.4	79.0
2005	5.5	-2.4	43.5	7.1	30.5	20.3	14.1	90.8	93.6
2006	5.8	5.7	47.4	9.0	37.2	21.7	10.4	-26.5	100.8
2007	4.7	-18.7	47.6	0.3	40.5	8.9	19.7	89.8	112.4
2008	4.7	0.6	51.9	9.0	42.2	4.4	6.7	-65.8	105.6
2009	3.8	-10.7	60.0	28.6	42.7	10.8	5.6	-12.5	112.0
2010	5.7	32.5	88.1	29.3	74.8	54.3	5.4	-12.7	174.0
2011	5.5	-2.8	109.9	24.7	87.2	16.7	6.1	12.8	208.7
2012	4.8	-13.2	113.0	2.8	69.1	-20.8	4.4	-27.2	191.3
2013	4.7	-1.1	125.3	10.6	78.7	14.0	5.1	16.0	213.8
2014	6.1	27.9	140.8	12.4	82.3	4.5	4.5	-13.3	233.6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 농산물 수출입 통계》를 기초로 작성

중국 상무부《 중국 농산물 수출입 통계》를 기초로 작성한 <표 2-3>을 보면, 2001년부터 4가지 농산물의 수출액의 성장 추세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 중 곡물류 농산물은 2002년 들어서 전년동기 대비 성장폭이 가장 커 59.5%까지 성장했다. 이는 야채과일류 농산물의 5.5배이다. 2001년 수산품 및 기타 완제품의 수출액은 25.9억 달러로 가장 커서 같은 해 4종류 농산물 수출 총액의 57.6%를 차지한다.

2006년 4가지 농산물 수출액은 100.8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 중 야채과일류 농산물의 성장폭은 수산품 및 기타 완제품을 초과하여 21.7%에 이르고 4가지 농산물의 수출액은 49.4%에 이른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곡물 식량류 수출액이 -65.8%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으며 4가지 농산물의 수출 총액도 감소하기 시작한다.

2010년 수산품 및 기타완제품, 야채과일류, 가축 가금 상품의 노동 집약형 농산물은 수출총액의 27.1%, 32.1% 그리고 5.0%로 나뉘어 합계 64.2%가 된다. 2010년 가축가금 상품 수출액은 5.67억 달러로 농산물 수출총액 중 2002년의 7.5% 수준에서 5.0%로 하락했다.[11] 2014년 기준 가축가금 상품의 성장폭은 27.9%에 이르고 4가지 농산물 중 가장 큰 가치를 가진다. 수산품

11) 중국 상무부, 『중국산 농산물 수출입 통계』, 2014.

Collection @ kmou

및 기타 완제품의 수출액은 60%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은 희소한 토지자원 때문에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토지 집약형 상품, 예를들어 곡물 식량류 등 농산물은 비교우위가 없다. 하지만 가축 가금상품, 수산품 및 기타 완제품, 야채과일류와 같은 노동 집약형 상품은 노동비용이 낮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고 수출에서 비교우위가 명확하다.

Table 4 2004-2014 중국, 주요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억 달러

년도	곡물류		연료용 유류		설탕류		축산류		합계
	총 금액	증가율 %	총 금액	증가율 %	총 금액	증가율 %	총 금액	증가율 %	
2004	22.2	-	73.7	-	3.4	-	35.6	-	134.9
2005	13.9	-37.2	81.6	10.7	4.5	34.3	35.9	1.0	136.0
2006	8.2	-41.1	81.2	-0.5	6.2	36.8	38.0	5.6	133.5
2007	5.2	-37.3	122.6	51.0	4.8	-21.8	51.5	36.4	184.1
2008	7.0	35.7	231.9	89.2	4.2	-12.2	62.6	21.5	305.7
2009	7.3	13.0	186.1	-13.9	4.5	15.6	45.9	-20.4	243.8
2010	15.0	71.2	270.4	28.7	10.3	116.2	80.1	54.1	375.9
2011	20.1	34.1	321.3	18.8	21.3	106.5	117.6	46.8	480.3
2012	4.4	-27.2	362.7	12.0	12.7	-1.9	330.2	2.3	710.0
2013	50.0	5.4	425.9	10.3	2.4	-7.2	1,928.7	33.1	2,406.9
2014	61.0	22.1	459.0	7.8	17.8	-24.5	2,057.0	6.7	2,594.8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 농산물 수출입 통계》를 기초로 작성

중국 수입 농산물 통계에서 보면 곡물류, 연료용 유류 농산물 수입성장이 비교적 빠르다.

2001년 무역정책이 한층 완화됨에 따라 곡물류, 연료용 유류, 설탕 및 설탕 식품 및 축산품류의 수입이 비늣하게 증가하였다.

Collection @ kmou

2008년 4종류의 농산물 수입액은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그 중 연료용 유류 농산물 수입액은 4가지 수입액 중 76%, 축산품은 20%를 차지했다. 2010년에는 중국 곡물류 농산물 수입액이 대폭 상승하여 동년대비 71.2% 성장하였다. 2014년 기준 축산품 수입액은 2057.01억 달러에 이르러 4가지 농산물 수입 총액의 91%를 차지했고 곡물류의 수입액은 겨우 2%에 불과했다. 이는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곡물 식량류 등 농산물의 수요가 중국 국민의 농산물 소비구조가 이미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3 중국 농산물 수출입의 무역추세

농산물 무역의 흐름 분포는 국제무역 지역 분포라고도 부른다. 즉 하나의 국가 또는 하나의 지역으로 농산물이 수출되어 흘러들어 가는 방향으로, 한 국가와 무역 파트너국의 경제 연계정도를 반영한다.

아래 Table 5은 중국의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지역등에 대한 농산물 수출액과 증가율 통계수치이다.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에서 2014년 중국의 각 대륙에 대한 농산물 수출 총액은 전체적으로 성장추세로 나타냈다. 표의 통계 수치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주로 아시아, 북미와 유럽 등에 농산물을 수출했다.

2002년 중국의 3대 대륙에 대한 농산물 수출액은 153.7억 달러로 총액의 85%를 차지한다. 2014년에는 649.8억 달러로 증가하며 91%를 차지했다. 2014년 중국의 아시아로의 농산물 수출액은 453.8억 달러로 5개 대륙 총액의 63%를 차지했다.

2014년 중국의 유럽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111.7억 달러. 북미가 84.3억 달러로 두 대륙의 합이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동시에 2014년 중국의 아시아와 남미대륙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각각 28.4억 달러, 22억 달러로 전체의 7%를 차지한다.[12)]

12) 중국 상무부, 『중국산 농산물 수출입 통계』, 2014.

Collection @ kmou

위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중국 농산물의 수출시장 집중도는 비교적 높다.

Table 5 2002-2014 중국 농산물 수출 분포

단위: 억 달러

년도	아시아		아프리		유럽		남 아메리카		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합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2	130.6	-	4.5	-	23.1	-	2.3	-	18.1	-	1.6	-	180.2
2003	147.5	12.9	6.5	45.7	30.3	31.3	2.7	17.5	22.8	26.2	1.9	38.7	211.7
2004	157.9	7.0	5.9	-8.2	33.8	11.5	4.0	50.1	26.2	15.0	3.0	16.5	230.8
2005	179.4	13.7	6.6	10.9	44.9	33.0	5.2	29.5	32.2	22.7	3.4	13.9	271.7
2006	191.0	6.4	8.9	34.5	55.2	22.9	8.1	55.0	42.2	31.2	4.8	40.8	310.2
2007	220.3	15.4	11.4	28.0	70.1	26.9	9.0	10.5	49.4	16.9	6.0	25.5	366.2
2008	225.3	2.2	15.5	36.2	83.0	18.3	13.1	47.2	57.8	16.9	7.6	26.4	402.3
2009	232.5	-3.0	15.8	0	72.4	-12.7	10.8	-17.5	53.6	-7.2	7.0	-7.8	392.1
2010	292.3	25.7	17.9	13.4	87.9	21.4	16.3	51.0	65.8	22.7	8.6	22.7	488.8
2011	363.0	24.2	24.3	35.9	105.4	19.9	21.0	29.2	76.1	15.7	11.2	30.0	601.0
2012	387.2	6.7	24.8	2.0	99.7	-5.4	20.6	-1.8	81.8	7.5	11.5	2.3	625.6
2013	417.7	7.8	28.0	12.9	106.6	6.9	23.9	15.7	82.4	0.7	12.5	8.9	671.1
2014	453.8	8.7	28.4	1.6	111.7	4.8	22.0	-7.5	84.3	2.3	13.1	5.2	713.3

자료: 중국 상무부《중국 농산물 수출입 통계》를 기초로 작성

Collection @ kmou

Table 5에서 보듯이 2014년 중국의 아시아와 유럽으로의 농산물 수출총액 비중은 79%,나머지 대륙이 21%를 차지했다.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중 일본, 한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 연맹(ASEAN)의 중국 농산물 수입이 비교적 컸다.

Table 6 2004-2014 중국 농산물 수입 분포

단위: 억 달러

년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 아메리카		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합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4	55.0	-	9.2	-	25.7	-	65.9	-	91.5	-	32.2	-	279.5
2005	56.4	2.6	10.7	16.2	33.8	31.4	75.3	14.3	78.9	-13.7	31.2	-3.4	286.3
2006	79.2	40.3	12.0	12.0	36.7	8.6	76.8	2.0	84.2	6.7	30.8	-1.2	319.7
2007	100.9	27.4	-22.2	-22.2	45.0	22.5	115.3	50.1	104.0	23.6	34.9	13.4	409.4
2008	124.3	23.2	-0.5	-0.5	53.2	18.3	142.1	8.9	161.9	55.6	39.7	13.7	530.4
2009	111.9	-9.9	26.0	26.0	50.4	-5.3	142.1	0	166.9	3.1	38.6	2.8	521.5
2010	162.1	44.8	33.3	33.3	68.3	35.4	194.9	37.1	216.7	29.8	61.6	59.3	719.1
2011	211.7	30.6	45.3	45.3	94.3	38.1	251.2	28.9	264.5	22.1	94.6	53.6	938.8
2012	240.5	13.6	24.4	24.4	106.9	13.2	285.4	13.6	341.4	29.1	112.7	19.1	1114.8
2013	221.9	-7.7	8.3	8.3	130.3	22.0	329.5	15.4	324.1	-5.1	142.9	26.9	1179.0
2014	227.9	2.7	4.5	4.5	141.7	8.7	320.3	-2.8	343.1	5.9	150.1	5.0	1214.8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 농산물 수출입 통계》 를 기초로 작성

중국 상무부《 중국 농산물 수출입 통계》를 기초로 작성한 Table 6은 2004년에서 2014년까지 중국이 아시아, 유럽, 북미 그리고 남미에서의 농산물 수입액의 통계수치이다.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부터 2014년 까지 각 대륙으로부터 의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전체적으로 추세이다. 또한

Collection @ kmou

중국 농산물 수입은 주로 아시아, 유럽, 북미 그리고 남미지역에서 이루어졌다.[13)]

2004년 중국이 각 대륙에서 수입한 농산물 총액은 279.5억 달러로 4개 대륙이 96%를 차지하였고. 2014년에는 1214.8억 달러에 달하며 85%를 차지했다. 2014년 북미가 중국의 제1 수입원이 되면서 28%를 차지하였고, 두 번째로 남미대륙이 26%를 차지했다. 세 번째 는 아시아대륙이 19%를 차지했다. 오세아니아주와 유럽, 아프리카는 중국의 농산물 총 수입에서 12.4%, 11.6%, 2.6%를 각각 차지했다.

Table 7 2001-2014 중국산 농산물 수출분포

단위: 억 달러

년도	한국		일본		아시안		합계
	수출총액	증가율%	수출총액	증가율%	수출총액	증가율%	
2001	10.4	-	57.2	-	-	-	-
2002	20.4	24.6	57.2	0	19.8	0	97.4
2003	25.6	25.7	60.4	5.7	23.5	18.8	109.6
2004	21.2	-17.2	73.9	22.3	21.2	-9.8	116.3
2005	28.5	34.3	79.3	7.2	24.2	14.4	132.0
2006	28.9	1.5	82.1	3.6	30.5	26.1	141.6
2007	36.0	24.5	83.5	1.7	39.3	43.0	158.8
2008	31.7	-12.0	77.0	-7.8	45.7	16.2	154.4
2009	25.0	-14.2	68.8	-0.9	47.0	1.3	140.7
2010	35.3	24.6	91.5	19.0	74.6	39.6	201.3
2011	41.7	18.3	109.9	20.2	98.6	32.3	250.3
2012	41.6	-0.5	119.8	8.9	101.0	2.4	262.3
2013	43.9	5.6	112.4	-6.2	148.4	17.7	304.6
2014	48.6	10.8	111.3	-1.0	160.3	8.0	320.2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 농산물 수출입 통계》를 기초로 작성

중국 상무부《 중국 농산물 수출입 통계》를 기초로 작성한 Table 7를 보면 2001년에서 2014년까지 중국 농산물은 일본, 한국 및 동남아 연합 3개 지역으로의 수출액이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이다. 2005년 중국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성장폭은 34.3%에 이르러 역대 가장 큰 성장폭을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액 감소를 제외하고, 중국 농산물은

13) 중국 상무부, 『중국산 농산물 수출입 통계』, 2014

Collection @ kmou

한국시장으로 안정정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일본, 한국 동남아 3개 지역으로의 농산물 수출 무역액은 200억을 돌파하였다. [14]

Table 8은 중국의 2004년에서 2014년까지 중국 농산물의 무역방식에 따른 수입현황과 전년대비 성장 상황을 반영한 표이다.

Table 8 2004-2014 중국 농산물 무역방식에 따른 수입현황

단위: 억 달러

년도	일반 무역		가공 무역		기타 무역		합계
	금액	동기대비증 가감소%	금액	동기대비증 가감소%	금액	동기대비증 가감소%	
2004	206.2	-	51.9	-	19.5	-	277.6
2005	201.6	-2.2	56.8	9.3	25.9	32.8	284.3
2006	222.2	10.2	57.5	1.2	37.2	43.4	316.9
2007	299.7	34.9	59.1	2.7	47.6	27.9	406.4
2008	451.7	50.8	58.8	-0.5	67.5	41.9	578.0
2009	408.5	-9.5	55.1	-6.2	52.9	-21.6	516.5
2010	566.7	38.7	69.1	25.3	77.2	45.9	713.0
2011	741.7	30.9	88.6	28.2	10.3	33.9	840.6
2012	884.7	19.3	93.8	5.9	130.4	26.1	1108.9
2013	957.3	8.2	91.8	-2.1	123.2	-5.5	1172.3
2014	979.7	2.3	96.2	4.7	131.9	7.1	1207.8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 농산물 수출입 통계》 를 기초로 작성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방식은 일반적인 무역방식을 주로 한다. 2010년 중국은 일반무역 방식으로 농산물 총액 566.7억 달러를 수입 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38.7% 성장하였다. 가공무역 방식의 수입액은 69.1억 달러로, 당시 농산물 수입총액의 9.6%를 차지했다. 기타 무역 방식 중에는 보세창고 통과 화물 방식이 69%를 차지했다.

외자기업은 중국 농산물 수입의 주력 기업으로 2010년 수입액 201.7억 달러로 전년대비 19.9%성장하였다. 2014년 기준 중국은 일반무역 방식으로 수입된 농산물총액은 979.6억 달러를 달성, 전년대비 2.3%증가하여, 한해 농산물 수입총액의 81%를 차지했다. 가공무역 방식 수입총액은 96.2억 달러로

14) 중국 상무부, 『중국산 농산물 수출입 통계』, 2014.

Collection @ k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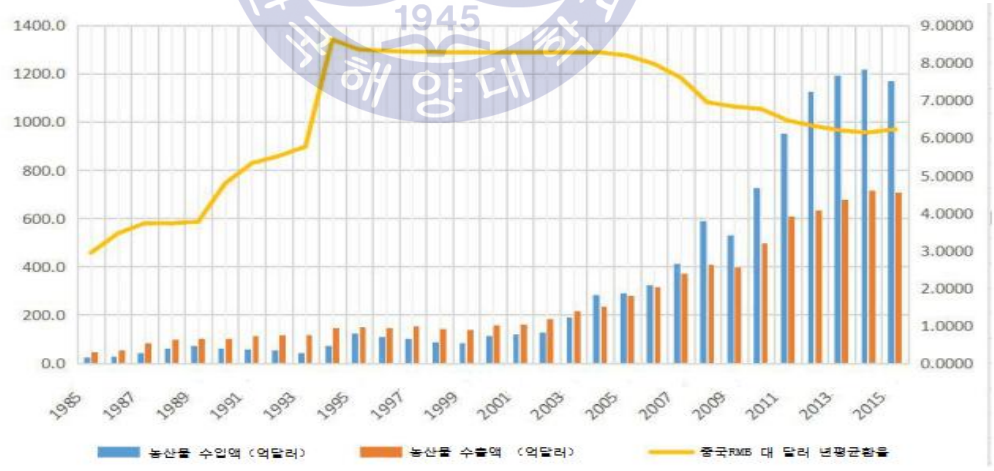
전년대비 4.7%성장하여 2014년 중국 농산물 수입총액의 7.9%를 차지했다.[15)]

2.2.4 중국 농산물 무역과 환율의 영향

환율 경제 조정의 중요한 구로써, 제도의 변화와 환율 수준의 급격한 변동은 한 국가의 경제에 내. 외부적으로 중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외무역, 국내생산, 물가와 직업, 금융안전과 거시적 안정 등에 영향은 미천다.

중국인민은행의 2005년 7월 21일 RMB 환율제도 시장화 개혁 이래로 RMB 환율 양방향 파동의 빈도와 폭은 날로 지고 있으며, RMB 환율변동은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환율개혁 이래로 RMB의 달러에 대한 환율 누계는 20%이상 평가상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거액의 환차손을 입고 수출기업의 경영난 심지어 파산에 이르는 일 또한 발생했다.[16)]

Fig. 2 1985-2015 중국 농산물 무역과 RMB 환율 변동상황



15) "中国贸易逆差", http://www.wenku1.com
16) 中国经济网, "2005年汇改以来人民币兑美元走势大事记", 2013.10.

Collection @ kmou

1994년 중국 환율개혁 이래로, RMB환율은 계속해서 평가절상되는 상황이다. 1994년에서 1995년에 RMB 평가절상 폭은 3.21%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커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1995년에서 2000년에 RMB는 소폭으로 평가절상 되는 추세였다. 누적 증가폭은 0.78%였다. 이 시기에 중국 농산물 무역의 기능은 수출로 외화를 버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중국은 일부 농산물의 대외무역을 독점하여 농산물 수출에 보조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수요탄력성이 비교적 큰 농산물의 수입에도 제제를 가했다. 중국 농산물 무역액은 계속해서 흑자를 이어나갔다.

2001년에서 2004년에는 RMB 환율이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아, 1달러에 RMB 8.27 수준을 유지했다. 2005년 환율제도 개혁 이래로, RMB는 대폭 평가절상 되었고 2004년의 1달러의 RMB 8.27에서 2005년에는 1달러에 RMB 8.19가 되었다. 2004년에 중국 농산물 수입액은 280.5억 달러, 수출액은 233.8억 달러가 되어 농산물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여 무역수지 적자 -46.6억 달러가 되었다.

2005년에서 2008년에 RMB 환율 변동폭은 비교적 작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중국 농산물 무역 수지는 평행을 유지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중국 농산물 수출은 대폭 즐어들어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82.6 억 달러가 되고 2004년에 비해 무역수지 적자가 2.9% 증가하였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RMB 환율은 대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2008년의 1달러에 RMB 6.85에서 2010년 12월에 6.65로 평가절상 되었고. 이 시기에 중국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0년 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494.2억 달러, 수입액은 725.7억 달러가 되어 무역수지 적자가 231.5억 달러에 이르다. 이에 2008년 대비 농산물 무역차액이 26% 성장했다.

Collection @ kmou

2011년에서 2015년에 RMB는 계속해서 환율의 상승 추세에 있었다. 그 중 2011년 1달러에 RMB 6.45에서 2015년 RMB 6.22가 되어 3.6% 평가절상되었다. 그 사이, 중국 농산물 수입액은 계속해서 수출액을 초과하여 무역수지 적자 또한 끊임없이 확대되었다. 2015년 중국의 연 농산물 수입액은 1168.8억 달러, 수출액은 706.8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462억 달러가 되었다.

종합하면 1990년에서 2015년까지 중국 농산물의 수입액과 수출액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고, 중국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전통적인 국제경제학이론에 따르면 RMB 환율의 평가절상은 중국 농산물 수출입 과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으로 보면 RMB의 평가절상은 중국 농산물 수출 가격을 상승시켜 중국 농산물의 국제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낮추고, 농산물 수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국외 소비자의 중국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가격의 영향을 받아 감소하고, 이로인해 중국 농산물 수출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최초 무역계약의 체결 및 새로운 상대가격 때문에 실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등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보면 RMB의 평가절상은 농산물 무역에 일정한 지연효과를 발생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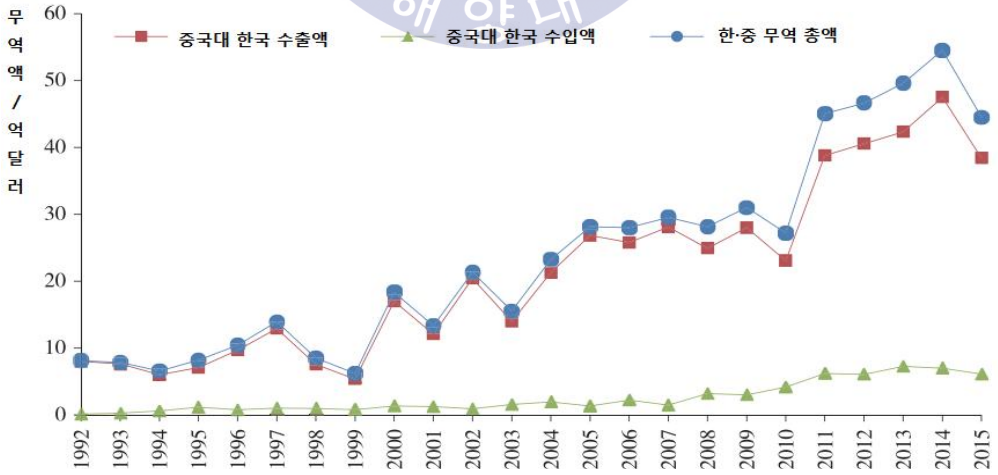
Collection @ kmou

제 3 장 중·한 농산물 무역현황과 경쟁력비교

3.1 중·한 농산물 무역현황

1992년에서 2015년 중한 농산물 무역발전 규모는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무역총액은 4.5배 증가하였고 연 평균 7.7% 성장율을 보였다. 그 중 중국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무역액은 3.8배 증가하였고, 연 평균 7.06%의 성장폭을 보였다. 중국의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무역액은 54.45배 증가했고, 연 평균 19.08% 성장폭을 보였다. 한중 농산물 무역은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해왔고 한국에서의 수입 농산물 무역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다. 비율로 보았을 때 한중 농산물 무역액은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양국간의 무역 의존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할당액이 큰 비율을 차지했다.[17]

Fig.3 중·한 농산물의 무역액 변화



17) 农业部农业贸易促进中心, "中国农产品贸易变化趋势特征分析", 2015.

Collection @ kmou

한국 농산물의 품질 안전법 체계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반드시 상품명, 상품종류, 생산일, 내용물, 중량, 수입상의 명칭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한국어로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은 계속해서 중국 농산물에 대해 매우 엄격한 검역표준을 채택해왔다.

Table 9 한국 분류농산물 관세수준

단위 : %

농산물류	평균 관세	제로 관세 비율	최고세율
축산품	21.7	3.0%	89
수산물	16.0	0.7%	47
유제품	66.0	0%	176
채소, 과일	58.7	0.2%	887
커피, 차	53.9	0	514
곡물 제품	153.6	0.2%	800
씨 기름, 유지	40.7	3.6%	630
당류	15.7	0	243
음료, 연초	32.2	0	270
면화	0	100%	0

자료: 세계관세개관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의 주요 장벽 중 관세 수준은 높은 편이다. 한국의농산물 관세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있다 .

첫째, 농산물 관세가 높다. 2014년 한국 농산물의 평균 관세는 52.7% 이상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한다. 최고 농산물 세율은 887%로 세율이 100%를 초과하는 농산물이 10%에 이르고, 5.6%의 농산물만 무관세이다. 중국이 보유한 수출 우위의 농산물 중에서 수산품의 최고세율은 47%, 야채, 과일의 최고세율은 887%이다.

둘째, 복잡한 농산물 관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국 농산물은 주로 종가세를 채택하고 일부 농산물은 선택세를 사용하고 조정관세와 계절성 관세를 사용하기도 한다. 종가세와 종량세 중 세율 징수가 높은 것을 선택하고, 조정관세는 주로 수산품, 완제품 쌀과 조미료 등에 사용한다.

Collection @ kmou

셋째, 농산물 관세 배당액 사용범위는 넓다. 한국은 14.3%의 농산물에 대해 관세배당액을 채택하고, 배당액 내에서 최고 관세는 50%, 배당애 외의 최고 관세는 887%이다.

지금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농산물가 곡물, 야채, 야채과일제품, 씨유, 사료와 수산품 및 기타 제품 등이 있다. 이를 품목의 수출액 합계는 중국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액의 80%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두 번로 큰 농산물 수입국이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의 6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 시장이다. 중·한 FTA 완성 이후 중국 농산물은 한국 시장에서 20%를 차지한다.[18)]

3.2 중·한 농산물 경쟁력 비교

국가경쟁력은 주어진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그 나라의 경제주체인 기업·정부·개인이 다른 나라의 경제주체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기업경쟁력, 정부경쟁력, 개인경쟁력으로 구성된다.[19)]

무역경쟁력은 한 국가 혹은 지역에 있어서 본국의 상품, 산업 및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 외국시장에서 개척하고 점유하여 그 시장에서 이윤을 얻는 능력을 말한다. 무역경쟁력은 원가 절대우위와 원가 상대우위으로 나타낼 수 있다.

Table 10 한국 농산물 관세수준

단위 : %

농산물 분류	평균 관세	무관세 비중	최고세율
축산품	21.7	3.0%	89
수산물	16.0	0.7%	47
유제품	66.0	0	176
채소/과일	58.7	0.2%	887

18) 农业部对外经济合作中心, “中国农产品和农业企业国际竞争力研究“, 2017.
19) 한국경제정보센터 국가경쟁력, https://eiec.kdi.re.kr/

Collection @ kmou

커피/차	53.9	0	514
곡물/곡물제품	153.6	0.2%	800
유지/지방	40.7	3.6%	630
설탕/설탕식품	15.7	0	243
음료수/담배	32.2	0	270
솜	0	100%	0

자료: <세계 관세>에서 발취, 정리

본 논문에서는 경쟁력 비교를 위해 가능한한 세율이 비교적 높고 수출이 가장 어려운 농산물을 선택하여 계산했다. 그러므로 한국분류 농산물 관세 수준을 선택하기 전에 10가지 중 최고세율의 두 가지 채소류(887%)와 곡물류(800%)를 선택하여 계산을 진행했다.

3.2.1 국제시장 점유율 분석 (International market share)

국제시장점유율은 자국의 상품이 세계의 시장에서 경쟁력과 자국 상품이 수입국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별하여 나타낸다. 국제시장점유율 모형은 각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0에서 1사이에 있어야 하고, 시장 점유율의 합이 1이 되어야 한다는 시장점유율 모형의 기분 가정율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MSij = X_{ij}/Xwj \cdots\cdots (1)$$

여기서: MSij는 i국의 j상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퍼센트이다. Xij는 i국 j상품의 수출 총액이다. Xwj는 세계의 j상품의 수출 총액을 나타낸다. MSij가 높을수록 이 나라의 상품 경쟁력이 더욱 강해진다.[20]

20) 施锦芳, 闫飞虎, 『金砖五国承接离岸服务外包竞争力及影响因素分析』, 2016. p.38.

Collection @ kmou

Table 11 중국의 곡물과 채소 대한국시장 수출입현황과 점유율

단위: 억 달러

	곡물		채소	
구분	2014	2015	2014	2015
대한국수출액	2018.4	1399.0	4787.8	5724.0
한국의대세계수입액	42041.5	37070.3	6901.0	6936.0
중국수출액	4454.2	3220.2	82263.4	90264.0
세계수입액	1195501.1	999738.0	676547.9	657920.2
MS1	4.8	3.8	69.4	82.5
MS2	0.4	0.3	12.2	13.7

자료 출처 : The UN agency trade database를 기준으로 정리

MS_1과 MS_2는 중국의 곡물, 채소가 한국 및 세계 수입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나타낸다. Table 11 2014년 중국의 곡물이 한국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 2015년에는 3.8%로 약 1% 하락했다. 채소가 한국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69.4%, 2015년 82.5%로 모두 50%를 넘어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채소는 곡물에 비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014년 중국 곡물은 세계수입시장에서 0.4%의 비중을 차지, 2015년에는 0.3%로 하락했다. 채소는 2014년 12.2%, 2015년 13.7%로 세계수입시장에서 곡물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시장구조 등 다방면에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은 가장 감이 하는 상품 유형은 노동력 및 자원형 농산물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반적으로 수출 기술형 농산물로 중국의 경쟁우위 상품과 다르다.

Collection @ kmou

3.2.2 무역경쟁력 지수 분석 (Trade Competitiveness)

무역 경쟁력지수(TC 지수)란 특정국가 특정상품의 수출총액 및 특정국가 특정상품의 수입총액과 수출총액 간의 비율이다. TC 지수는 특정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대해 설득력이 강하다. 수입 요소와 수출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특정국가의 특정상품의 국제 경쟁력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TC_{ij}^{k} = \frac{X_{ij}^{r} - M_{ij}^{r}}{X_{ij}^{k} + M_{ij}^{k}} \cdots\cdots (2)$$

여기서 X_{ij}^{k}는 i 국(중국)의 대 j 국(한국)에 대한 상품 k 의 수출총액, M_{ij}^{k}는 i 국(중국)의 대 j 국(한국)으로 부터의 상품 k 의 수입총액을 말한다.

TC 지수는 최대치가 1 이고 최소치가 -1 이다. 따라서 TC 지수가 0~1 사이에 있다면 특정상품의 생산능률이 국제상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TC 지수는 1 에 접근할수록 특정상품의 국제경쟁력이 강해질 것이다. 반대로 TC 지수가 -1~0 사이에 있다면 특정상품의 생산능률이 국제무역 시장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제시장에서 이런 특정상품의 경쟁 열위에 있을 때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TC 지수가 0 에 가까울 경우에 국제무역 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이 보통이고 특정상품의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21)]

21) 량슈앙, 『한중 FTA 가 중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2015. p.26

Collection @ kmou

Table 12 2013—2015 중국 곡물과 채소 TC지수

단위: 억 달러

	2013	2014	2015
중국대한국곡물수출액	5,139.6	4,454.2	3,220.2
중국대한국곡물수입액	50,537.6	61,748.8	93,496.0
중국대한국채소수출액	78,714.0	82,263.4	90,264.0
중국대한국채소수입액	25,493.5	25,798.5	26,214.3
TC1	-0.8	-0.9	-0.9
TC2	-0.2	-0.1	0.0

자료： The UN agency trade database 를 기준으로 정리

TC1은 곡물의 경쟁력을 수치로 나타내고. TC2는 채소의 경쟁력을 수치로 나타낸다. 중국 곡물은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수출액의 하락폭이 약 37.4% 이고 수입액은 약 85%의 증가하였다. 채소 수출액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14.7%가 된다. 수입액의 성장폭은 비교적 낮아 2.8%이다. 2013년 곡물 경쟁력 수치는 -0.8, 2014년에 -0.9, 2015년 채소 경쟁력 수치는 -0.9로 거의 -1에 근접한다. 곡물의 무역액은 하락하고 경쟁력 수치가 매년 감소,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에서 2015년에는 마침 채소의 무역액이 증대하고 경쟁력 수치가 마이너스 성장한 시기로 거의 0에 근접한다. 채소의 경쟁력이 상승추세라는 것은 중국의 무역에서 채소 경쟁력을 곡물경쟁력 보다 강한 우위를 가진다.

중국은 풍부한 자원, 값싼 노동력, 알맞은 기후를 가지고 있어 곡물 및 채소 재배에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위를 가지고 생산원가를 줄여 한국 무역에서 농산물 우위를 늘려갈 것이다. 게다가 빠르게 과학적 재배 방식을 발전시켜 상품의 품질을 좋게하고 있다.

Collection @ kmou

3.2.3 수출경합지수 비교분석 (Export Similarity Index, ESI)

수출경합지수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국가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라별로 계산한 후 작은 값을 선택하여 합산한 값으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품목별 비중이 양국 사이에 유사할수록 경합성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양국의 특정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사할수록 증가하므로 수출경합성이 증가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양국의 수출구조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 수출경합지수는 0이 되며, 양국의 수출 상품구조가 일치하면 수출경합지수는 1이 된다. 이와 같은 ESI지수는 다음의 공식으로 표시된다.

$$ESI_{ij} = \sum_{k=1}^{n} Min\left(\frac{X_i^k}{X_i}, \frac{X_j^k}{X_j}\right) \cdots\cdots (3)$$

여기서 ESI_{ij} 는 i국과 j국의 수출경합지수이며 x_i^k 는 i국 k품목의 총 수출액,X_i 는 i국 총수출액, X_j^k는 j국 k품목의 총 수출액, X_j는 j국 총 수출액을 말한다.

2014년에 중국의 총수출액은 2.22만억달러이고, 한국의 총수출액은 573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5년에 중국의 총수출액은 2.27만억달러이고, 한국의 총수출액은 5269억 달러를 기록했다.[22)]

22) 남수중,조유리, “한중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2015. p.29

Collection @ kmou

Table 13 2014년 중국과 한국의 주요농산물 품목별 수출액

단위: 달러

HS코드	품목별	중국 총수출액	한국 총수출액
1006	쌀	416,664,794	3,363,263
1201	콩	201,940,505	1,960,256
0703	마늘	1,819,296,406	1,131,444
091012	생강	30,427,758	46,502
0706	당근	358,890,30	858,388
15155	참깨	16,239,11	1,450,416
1005	옥수수	33,170,91	78,850

자료: 유엔무역데이터 http://comtrade.un.org/

Table 14 2015년 중국과 한국의 품목별 수출액

단위: 달러

HS코드	품목별	중국 총수출액	한국 총수출액
1006	쌀	378,283,38	3,893,539
1201	콩	199,080,087	591,67
0703	마늘	1,907,004,29	7,576,784
091012	생강	30,227,41	35,38
0706	당근	348,988,306	1,061,83
15155	참깨	16,319,841	2,792,75
1005	옥수수	7,664,16	127,859

자료: 유엔무역데이터 http://comtrade.un.org/

Table 15 중국과 한국의 농산물 품목별 ESI 지수

HS코드	품목별	2014	2015
1006	쌀	0.000005869	0.0000073895
1201	콩	0.00000342	0.000001122
0703	마늘	0.00000197	0.0000143799
091012	생강	0.000000081	0.000000067
0706	당근	0.000001498	0.000002015
15155	참깨	0.0000025313	0.0000053004
1005	옥수수	0.000000137	0.0000002427

자료: 유엔무역데이터 http://comtrade.un.org/

Collection @ kmou

Table 15의 한국과 중국 간의 ESI 수출경합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양국의 주요농산물 수출구조가 전혀 중복되지 않고, 양국의 농산물 무역은 전체적으로 겹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국농산물의 수출과 한국 농산물수입 사이에 무역 상호보완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중 양국의 생강 및 옥수수무역은 수출경합지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한중 FTA 발효 후 중국의 옥수수 및 생강은 앞으로 한국과 교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SI지수 값이 0에 가까우면 보완성이 강하며, 1에 가까우면 경쟁성이 강하다고 하였는데, 앞서 분석한 한·중 양국 농산물 품목별 ESI 지수를 보면 대부분 0에 가까웠다. 따라서 농산물 무역의 보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농산물 무역이 증가하고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 두 나라는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후 서로 “윈-윈 ” 할 수 있고, 절대로 중국에게만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농업이 한국의 농업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한중 FTA를 발효하는 것은 중국에게 더 유리하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중국 농산물의 한국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농산물가격과 생산량의 안정에 불리하다. 현재 산동 반도 및 요동 반도는 한국시장과 상당히 의존도가 있다. 한중FTA 발효 후 이런 의존도가 점점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한국 농업시장에 변동이 생기면 중국의 농업은 엄청난 충격을 입을 것이다.

3.2.4 현시비교우위 지수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현시비교우위 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23]는 수출경쟁력이 실현된 결과인 수출 규모와 시장 점유율의 변화를 지수 산출식

23)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세계 전체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로, 특정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데 널리 쓰이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Collection @ kmou

을 통해 설명한다. RCA지수는 서수적 특성, 기수적 특성, 이분법적 특성을 이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서수적 특성은 대상시장 내에서 특정 상품이 지수화된 수출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국가의 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기수적 특성은 지수값의 크기에 따라 수출경쟁력의 차이를 규정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이분법적 특성은 지수값 1을 기준으로 하여 1을 초과할 경우 당해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며, 반대로 1을 넘지 못할 경우 당해 시장에서 비교열위에 있다고 해석한다. RCA지수는 통상 다음의 공식으로 표시된다.[24)]

$$RCA_{ki} = \frac{X_{ki}/X_k}{X_i/X} \cdots\cdots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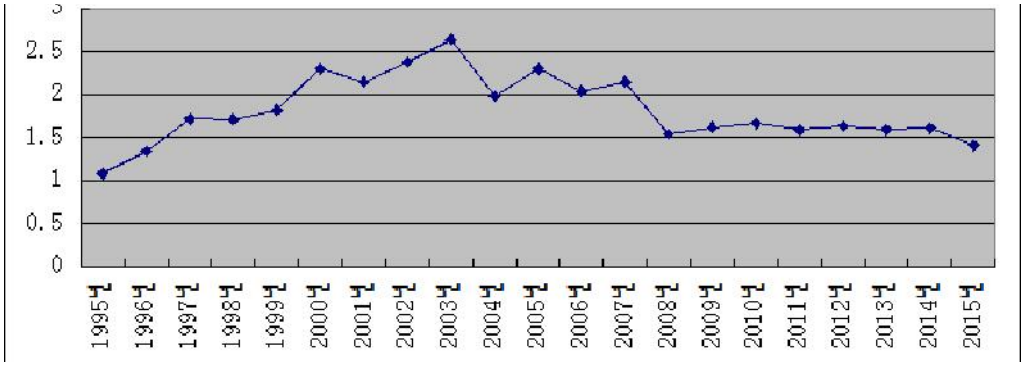
여기서 RCAki는 i국의 k상품에 대한 지수, Xki는 i국의 k상품수출액, Xk는 전 세계의 k상품 수출액, Xi는 i국의 총 수출액, X는 전 세계의 총 수출액을 말한다.

RCA지수는 개별 품목의 점유율을 각국의 전체 점유율로 나누어 표준화한 것이므로, 한 국가의 수출에서 각 품목이 지니는 상대적인 우위를 나타내는데 적당하다. 또한 이론적으로 세계 전체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은 같다는 점에서, RCA지수는 세계의 수요(수입규모) 변화에 대한 각국의 품목별 수출 변화를 설명해주는 경쟁력 지표라고 할 수 있다. RCA 값이 >1 시, 그 품목은 국가 수출 점유율이 세계의 총수출 점유율보다 크므로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나타낸다는 것이며 그 반대로 RCA 값이 <1 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24) 남수중・조유리, 「한중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5, p.53.

Collection @ kmou

Fig.4 중국의 대한국 RCA지수 추이



자료 : The UN agency trade database 를 기준으로 정리

Fig.4 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처음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21년간 중국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시종일관 1보다 컸다. 이는 중국이 한국 농산물에 대해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1995년에서 2003년 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 2003년에 최고 2.64에 이르렀고, 이와 이 시기에 한중 무역환경의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의 한국농산물에 대한 무역흑자는 계속해서 확대되었고, 한국은 무역 보호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로 인해 2004년부터 중국의 한국 농산물에 대한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 이후 변화폭이 작아졌고 안정된 형세를 나타냈다.

Collection @ kmou

제 4 장 중·한 FTA 농산물 협정

4.1 중·한 FTA 농산물 협정내용

세계 경제자유무역 지구가 끊임없는 발전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중국과 더 많은 국가들이 경제 자유무역 지역을 구축하여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윈윈 전략을 실현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2012년 정식으로 중·한 FTA 협약을 맺었다. 협상과정 중 최대의 난관은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였다. 중국과 한국은 농업산업 구조와 농산물의 비교우위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농산물 시장개방의 문제에 대해서 양국의 입장은 명확히 다르다. 양국은 2016년부터 이미 FTA협정의 효력이 발생했다. 중국이 더욱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치중하는 것에 비해, 한국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정부의 농업에 대한 보호도가 높고 농산물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차별개방의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 국제무역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1990년 중·한 무역의 총액은 28.5억 달러로 한·미 무역총액의 1/10이 안된다. 그러나 2015년 중·한 수출입 무역총액이 2273.7억 달러로 한국 GDP의 16.6%를 차지하였다. 한·미 수출입 총액은 1138.6억 달러로 한국 GDP의 8.3%를 차지했다. 중·한 무역총액이 2015년에는 이미 한미무역 총액의 2배가 되었다.[25)]

4.1.1 중·한 FTA의 농산물 양허내용

중·한 FTA에서 중국은 1,131개의 품목 중 102개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304개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그리고 725개 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양허하였다. 전통적인 민감품목인 쌀, 설탕, 밀가루, 식물성 유지, 담배를 포함하여

25) 中国商务部, “韩国进出口及中韩双边贸易情况”, 2016.9.

Collection @ kmou

건삼, 밤(미탈각), 밀크와 크림, 당류 등 101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시켰으며, 기타 조제식료품을 부분 감축품목으로 설정하였다.

다음 Table 16는 중·한 농산물 양허현황을 통해 중국의 품목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Table 16 중 · 한 FTA에서 상품 양허 결과

양허 유형	한국 양허				중국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즉시	223	9.96%	327	9.2%	283	19.3%	25	4.0%
(무관세)	102	4.6%	246	6.9%	121	8.3%	16	2.6%
(유관세)	121	5.4%	80	2.3%	162	11.1%	9	1.4%
5년	303	13.5%	16	0.5%	79	5.4%	5	0.8%
10년	176	7.9%	278	7.9%	661	45.1%	85	13.7%
(10년내)	702	31.3%	621	17.5%	1.023	69.8%	115	18.5%
15년	428	19.1%	103	2.9%	232	15.8%	74	11.9%
20년	439	19.6%	612	17.3%	105	7.2%	158	25.4%
20A	2	0.1%	28	0.8%	-	-	-	-
20B	1	0.04%	57	1.6%	-	-	-	-
(20년내)	1.572	70.2%	1.420	40.0%	1.360	92.8%	374	55.8%
부분감축	35	1.6%	492	13.9%	1	0.1%	19	3.1%
현행관세 +TRQ	21	0.9%	569	16.0%	-	-	-	-
협정배제	16	0.7%	77	2.2%	-	-	-	-
양허제외	596	26.6%	989	27.9%	104	7.1%	256	41.1%
합계	2,240	100%	3.547	100%	1.465	100%	621	100%

자료: 한·중 FTA 사이트

Collection @ kmou

Table 17 중 · 한 FTA 한국 측 농산물 양허결과

양허유형	세번수	비중(%)		주요품목
즉시철폐	216	13.4		소, 오리, 돼지, 대두, 사탕수수다밀, 돈지(기타), 가금지(기타),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 토마토종자, 양모(기타/탈지), 박류(밀), 양배추 종자, 겨자씨, 생모피(기타), 야자유 기타, 당밀(기타/주정제조용), 라드유, 무종자, 야자유(조유), 채소종자(기타),호밀(기타)등
5년철폐	209	13.0		해바라기씨유(조유/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유아용), 우황, 파스타(기타),옥수수박, 식혜, 사향, 사탕무, 건빵, 밀(기타), 면실유(조유/정제유/기타), 대두유(정제유/조유), 사탕수수, 스파 게티, 양조식초, 라면 등
10년철폐	164	10.2		꼬냑, 흰포도주(기타), 코코넛(기타/말린 것/미탈각-내과피), 베이커리제품(기타), 샤프란, 스위트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소나무(분재용), 붉은포도주(기타), 보드카, 마요네스, 아몬드(탈각) 등
소개	589	36.6		
15년철폐	202	12.5		해바라기씨유(정제유), 팜핵유(정제유), 카레, 올리브(설탕저장처리/조제저장처리/일시저장처리), 아이스크림(기타), 쇼트닝, 사과주, 바나나(기타/플랜틴), 망고스틴(신선/건조), 마가린(액상제외), 두리언(신선), 구아버(신선/건조), 파인애플(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망고(신선/건조), 팝콘(조제저장처리), 커피 크리머, 겨자(겨자의분/조분), 소시지(기타), 배합사료(축우/양돈/양계/어류/기타), 토마토페이스트,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냉동) 등
20년철폐	11년차부터감축	2	0.1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기타과실(잼, 젤리, 마말레이드 기타)
	13년차부터감축	1	0.1	기타한약재(기타식물 - 향료, 의료용등)
	20년선행철폐	236	14.6	도라지(신선/냉장), 매니옥(냉동), 데어리 스프레드, 소주, 맥주, 낙화생유(조유/정제유/기타/그 분획물), 인삼음료, 기타채소(설탕저장처리), 채소류의 혼합물, 춘장, 콩(기타/설탕저장처리), 유장(기타/사료용) 등

Collection @ kmou

소개		441	27.4	
현행관세+TRQ		7	0.4	참깨, 팥(건조/기타), 대두(기타/콩나물용),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기타, 맥아(볶지 않은 것), 전분(고구마의 것),대두(기타/기타)
부분감축	1%부분 감축	3	0.2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소오스
	10%부분 감축	8	0.5	팥(탈각/조제), 당면, 고사리/건조, 들깨, 당류(기타), 낙화생(기타/조제), 1송이버섯(냉동), 기타채소(조제)
	130%로 감축	15	0.9	매니옥(신선/냉장/기타/건조), 매니옥칩(건조), 매니옥펠리트(건조), 밀(펠리트/분쇄물/조분), 스위트콘(기타/건조),옥수수(종자용), 귀리(압착플레이크/분쇄물/조분/가공곡물), 얌-디오스코레아종(기타),토란-콜로카시아종(기타),아메리카토란-크산토소마종(기타)
협정 배제		16	1.0	쌀(멥쌀, 찹쌀, 벼, 쌀가루 등)
양허제외		532	33.0	보리(겉보리/쌀보리), 팝콘용 옥수수,감자(식용/냉동건조/칩용/감자분), 쇠고기(신선/냉장/냉동/식용설육), 돼지고기(냉동삼겹살/냉장삼겹살/냉장기타/돼지족/밀폐가공품),닭고기(냉동가슴/냉동날개/냉장육/닭고기가공품),분유(탈전지분유연유/조제분유/혼합분유),치즈(신선/가공/기타/체다), 버터, 꿀(천연/인조), 감귤류 오렌지(온주감귤/맨더린/탠저린/오렌지), 사과 배 포도,키위, 호박, 고추(신선/냉장/건조/냉동), 마늘(신선/냉장/일시저장/건조/냉동), 양파(신선/냉장/건조/냉동), 인삼류(뿌리삼류, 기타 가공품) 등
소개		581	36.1	
총 합계		1.611	100.0	

자료: 한·중 FTA 사이트 http://www.fta.go.kr/cn/doc/2/

중·한 FTA 협정내용 중에서 한국 농축산물의 구체적인 허용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국내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을 제외하는 등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농업의 민감성을 보호하였다, 일부 품목에 한정한 할당관세 제로(TRQ:Tariff Rate Quotas)의 제공 및 관세의 소폭 감축과 같은 보호장치를 활용하여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였다.

Collection @ kmou

Table 18 중 · 한FTA 중국 측 농산물 양허결과

양허유형		세번수	%	주요품목
일반품목	즉시	221	19.5	사료용조제품,잼 · 과실젤리,채소종자등
	5년	65	5.7	단백질계물질양모,수모,생사,가축원피, 냉동오렌지주스,볶지않은커피
	10년	439	38.8	사과 · 배 · 포도 · 복숭아 · 딸기(신선),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냉동),소시지,복은커피,물등
소개		725	64.1	
민감품목	15년	203	17.9	쇠고기선),파스타 · 돼지고기,과일주스 · , 닭고기채소주스(신,천연꿀,기공치즈등
	20년	101	8.9	김치,무알콜음료,기타조미료,인스턴트면류,커피조제품 ,곡분조제품,간장,발효주,냉동오리고기등
소개		304	26.9	
초민감품목	부분감축	1	0.1	기타조제식료품(20%→18.4%)
	양허제외	101	8.9	쌀,설탕,건조인삼,밤(미탈각),식물성유지, 밀크와크림,밀,밀가루,당류등
소개		102	9.0	
총합계		1.131	100.0	

자료: 한 · 중 FTA 사이트 http://www.fta.go.kr

Table 19 중 · 한FTA 농산물 양허협상 식량작물 결과 (상세)

품목	협상결과
쌀	쌀 및 쌀 관련16개 세 번: 협정대상제외
콩	식용 콩(487%, 콩나물용, 기타): 현행관세유지 + TRQ 1,0000톤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 -사료용: 양허제외
감자 과 감자분	칩용감자 (304%),기타식용(304%): 양허제외 -칩용:양허제외 -종자용감자(304%): 양허제외 -내동 · 건조(27%): 양허제외 -감자분(304%): 양허제외
보리	겉보리(324%), 쌀보리(299.7%): 양허제외 -맥아(볶지 않은 것 269%): 현행관세유지 + TRQ 5,000톤 -맥주맥(513%): 양허제외

Collection @ kmou

	-보리기타(299.7%): 양허제외
옥수수	팝콘용(630%),사료용(328%): 양허제외 -종자용(328%): 130%까지 감축(10년균등) -옥수수기타(328%): 양허제외
전분	감자전분(455%),옥수수전분(226%),기타전분(800.3%): 양허제외 -밀전분(50.9%), 매니옥전분(455%): 양허제외 -고구마전분(241.2%): 현행관세유지 + TRQ 5,000톤
기타	고구마(385%,냉동은45%),기타서류(385%): 양허제외 -발효주정(270%): 양허제외 -팥 종자용(420.8%): 양허제외 -팥 기타(420.8%): 현행관세유지+TRQ 3,000톤 -메밀(256.1%): 양허제외 -율무(800.3%)·기타가공곡물(800.3%): 양허제외

자료: 한·중 FTA 사이트 http://www.fta.go.kr/cn/doc/2/

4.1.2 중-한 FTA 협정문 내용 평가

중·한FTA 협정 내용에 대해 평가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번 수로만 보면 한국보다 중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더 크다. 세번 수 기준으로 한국은 양허제외가 34%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10년 철폐 품목이 10%, 5년 철폐 품목이 13%, 즉시 철폐 품목이 13%이다. 반면에 세번 수 기준으로 중국은 양허제외가 9%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10년 철폐 품목이 39%, 5년 철폐 품목이 6% 즉시 철폐품목이 19%이다.

세번 수 기준으로 한국의 자유화율 (20년 이내 철폐)은 63.9%이고 중국의 자유화율은 91.0%이다. 한국은 대 중국 평균 농산물 관세율 (2012년 기준)이 56.7%에서 41.1%로 낮아지며, 중국은 대 한국 평균 농산물 관세율이 평균 15%에서 2.9%로 낮아졌다. 반면에 한국은 양허제외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116.7%이다. 양허제외 품목외의 평균 관세율은 25.7이며, 평균 2.1%로 과세가 인하되었다.

Collection @ kmou

중국 양허제외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32.5%이다. 양허제외 품목외의 평균 관세율은 13.3%이며, 평균 0.0%로 관세가 인하되었다.[26]

Table 20 중 · 한 FTA 농산물 양허유형 (세번 수 기준)

한국 측 양허유형							
양허 유형	즉시 철폐	5년 철폐	10년 철폐	15년 철폐	20년 철폐	부분 감축	TRQ
34%	13%	13%	10%	13%	15%	2%	0.43%

중국 측 양허유형						
양허 유형	즉시 철폐	5년 철폐	10년 철폐	15년 철폐	20년 철폐	부분 감축
9%	19%	6%	39%	18%	9%	0.0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둘째 양국 간 2012~2014년 평균교역액 기준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크다. 실제로 단순히 세번 수 기준으로만 살펴볼 경우 실제 교역현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시장개방의 폭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다.

한국 측 양허안을 보면 육류 (02류)의 경우 112개 세 번 중에서 74개 세번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12-2014년 대 중국 육류 평균수입액은 11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0.004%에 불과하였다. 채유용 종자 인삼 (12류)의 경우 한국은 세번 기준으로 자유화율이 70.0%이나 대 중국 수입액 기준으로는 39.4%이며 , 중국은 세번 기준으로 자유화율이 98.0%이나 대한국 수입액 기준으로는 28.7%에 불과하다.[27]

26) 민경실, 제현정, 한중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2016.12, p.10.
27) 민경실, 제현정, 한중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2016.12, p.16.

Collection @ kmou

대 중국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양허제외가 31%이며, 10년 철폐품목이 12%, 5년 철폐 품목이 1%, 즉시 철폐 품목이 16%이다. 대 한국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양허제외가 47%이며, 10년 철폐품목이 7%, 5년 철폐 품목이 0%, 즉시 철폐품목이4%이다. 양국 간 2012~2014년 평균교역액 기준으로 한국측 농산물 자유화율(20년 이내 철폐)은 44.9%이고, 중국 측 농산물 자유화율은 46.6%이다.

셋째, 품목별로 살펴보면 양측 모두 상대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최소화하였다. 한국 측의 경우 채소(07류), 곡물 (10류), 밀가루 (11류) 육어류 조제품 (16류)의 자유화율이 낮고, 중국 측의 경우 낙농품 (04류), 과실견과류(08류), 당류 설탕과자(17류)의 자유화율이 낮다.

한국 측의 경우 2012~2014년 대 중국 수입액 비중이 가장 높은 채소 (07류)의 경우 145개 세 번 (493백만 달러) 중에서 101개 세번(454백만 달러)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중국 측의 경우 2012~2014년 대한국 수입액 비중이 가장 높은 당류 설탕과자(17류)의 19개 세번 (146백만 달러) 중에서 13개 세번 (139백만 달러) 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넷째, 중국 측의 기초농산물에 대한 세번 기준의 가공도별 자유화율이 평균 96.2%나 되지만, 2012~2014년 평균교역액 기준으로 가공도별 자유화율을 살폐보면, 양국 모두 기초농산물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측의 경우 기준으로는 기타의 자유화율이 90.8%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농산물의 자유화율이 57.0%로 가장 낮고, 중국 측의 경우 기초 농산물이 96.2%로 가장 높았으며, 가공농산물이 85.1%로 가장 낮다.

한국 측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반가공 농산물의 자유화율이 91.0%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농산물의 자유화율이 19.6%로 가장 낮았다. 중국측의 경우 기타가 98.1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농산물이 23.2%로 가장 낮았다.[28)]

28) 한중FTA, “한·중 FTA 농업 분야 평가와 시사점”, 2015.08.

Collection @ kmou

4.2 중·한 FTA가 양국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중·한 FTA 가 개시됨메따라 한국농산물은 수출 부문에서 중국시장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시장에서 한국 농산물의 수출 비중은 2005년 10.4%에서 2012년 13.7%로 증가했다. 중국은 2008년 이래로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가장 큰 농산물 수출 시장이 되었고, 일본은 한국의 제2농산물 수출 시장이다.[29)]

한국의 농산물 수출입액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수입액은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조금씩 증가했지만, 201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입액 대비 수출액이 약 2배 이상 높다. 한국의 농산물 해외의존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대외무역회사 사이트의 자료를 채용하여 2009년에서 2016년 6월까지의 중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을 조사했다. 중국농산물 수출입에서 보면 중국농산물의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많다. 2010년 중국의 전체 수출 규모 중 마늘과 사과과즙이 금액상으로는 3위, 교역량으로는 2위를 차지했다. 2010년의 수출액은 488.8억 달러, 수입액은 719.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1년의 중국 곡물 수입규모는 398만 8,528톤, 14억 9,224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4.9%하락했다. 동 기간중 밀의 수입규모는 147,528,911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34.7% 하락했다. 옥수수의 수입량은 938,213톤으로 전년도 비해 36.6%하락했다. 쌀의 수입량은 505,238톤으로 작년에 비해 112.1% 증가했다. 글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농산물 수출입액은 매년 증가했다.[30)]

하지만 중·한 FTA가 발효 2015년 중국농산물 수출입액이 감소하면서 시작했다. 중국농산물 수입품종은 점차 다변화되었다. 고추, 마늘, 콩, 참깨, 땅콩 등 전통적인 중국농산물 수입액은 점점 확대되었고, 2000년 이

29) 《세계 농업》, 2015.01
30) 中国商务部, "2016年中国农产品进出口统计报告", 2007.

Collection @ kmou

후 김치, 당근, 밀, 사료, 밤, 대두박, 담배, 대파 등이 수입되기 시작했다. 한국수출 비중이 큰 농산물은 물고기와 기타 수산품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25%를 차지한다. 기타항목들은 식품, 담배, 곡물가루 등의 수출액이 한국 2007년의 수출 총액의 약 11%를 차지한다. 육류와 육가공품, 설탕, 꿀 등도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의 주요 수입 농산물은 곡물과 과일이다. 그 중 쌀과 고추가 가장 많다. 비록 한국의 농산물 수출 비율이 점차 져가고 있지만 한국은 농산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한국은 이로 인해 계속해서 무역수지 적자의 상황이고 , 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농업의 상업화와 시장경제화의 대표 품종은 과일이다. 중국생산의 과일 중 신선도, 품질, 외관, 안전도 등 국내외의 요구를 만족하는 과일은 전체 생산량의 10% 뿐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수출 전문지역을 지정하여 많은 혜택을 주고있다. 그래서 과일 중 수출 가능한 상품과 종류가 많아지고 있다. 중국 가공기술과 처리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한국 외에도 세계 기타국가들 역시 중국의 과일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여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농산물의 기술을 확대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4.2.1 중·한 FTA발효 전후 농산물 무역현황

먼저 한국의 농산물 무역구조를 보겠다. 한국 농산물부문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곡물 이외에 과자류, 기타 농산물 제조류, 설탕류, 면류, 과일류등 5가지 품목을 선정했다. 먼저 조사한 것은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액이다.

Table 21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액

단위: 만 달러

년도	곡류	과자류	기타 농산물	설탕류	면류	과실일류
2010	2.977	29.047	46.765	31.097	24.014	19.542
2011	3.390	37.510	101.352	35.798	29.025	19.951

Collection @ kmou

2012	3.216	40.315	68.094	33.680	31.562	22.195
2013	2.979	43.397	69.756	28.914	32.081	23.338
2014	3.215	48.993	83.082	29.836	32.021	25.862
2015	3.478	45.216	81.876	27.348	33.073	25.147
2016	3.328	44.698	94.213	28.212	40.977	30.106

자료: 한국 농수산 식품수출 지원정보

중·한 FTA가 2015년 발효된 전후에 6개 품종의 수출액은 대부분 서서히 증가했고 기타 제조 농산물류는 2010년에 비해 2011년 약 2배 이상 성장했다. 한국의 농업은 대부분 소규모 농업으로 생산량이 작아 중국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로 소량의 고품질 상품을 수출하고 일반적으로 국내 생산의 농산물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된다. 생산량 부족 품목은 오히려 외국산 농산물이다. 중·한 FTA 발효전에 비해 곡물류, 과자류, 설탕류 품종의 수출액은 감소하엿 지만, 기타 농산물류의 수출은 증가하였다.

Table 22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액

단위: 만 달러

년도	곡류종류	과자류	다른 농산물	당류	면류	과실류
2010	345.501	24.602	64.497	110.320	9.968	94.513
2011	477.294	31.364	116.283	138.809	12.244	121.317
2012	475.533	35.847	102.834	126.077	12.720	141.238
2013	497.061	39.578	108.872	116.631	13.375	149.773
2014	437.455	48.544	123.635	108.207	13.984	167.740
2015	387.209	48.965	130.122	92.648	13.658	173.454
2016	333.227	54.606	146.548	97.709	14.300	176.030

자료: 한국 농수산 식품수출 지원정보

한국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을 이어서 보겠다. Table 21에 나타나듯이 한국의 곡물류 수입액은 비교적 많다. 수출액과 비교해보면 약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는 한국의 곡물류 농산물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곡물류 이외에 과자류, 기타 제조농산물류, 면류, 과일류 품목의 수입도 모두 매년 성장했다. 하지만 곡물류와 당류 품종의 수입이 중·

Collection @ kmou

한 FTA 발효전 보다 2년간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국인의 식습관이 점차 서양화 되고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곡물을 주식으로 삼던 식습관이 육류 주식으로 많이 바뀌고있다. 그래서 곡물류의 수입액이 감소하고 육류의 수입액이 중・한 FTA 발효후 보다 증가했다.

Table 23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액

단위: 만 달러

년도	곡류	과자류	기타 농산물	설탕류	면류	과실류
2010	199	4.348	3.351	9.786	3.969	3.003
2011	271	7.624	24.689	14.441	4.173	3.694
2012	234	8.679	5.902	14.825	3.760	4.200
2013	210	9.907	6.091	13.443	4.515	5.129
2014	313	12.300	8.895	11.307	4.669	6.047
2015	285	14.109	10.285	10.045	4.913	8.260
2016	435	12.666	11.147	10.706	8.692	11.023

자료: 한국 농수산 식품수출 지원정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기 위해 중국 주요농산물의 품종을 한국과 같게 선택했다. Table 22을 보자. 중・한 FTA 발효후 한국과 비교해 중국의 곡물류 수출액비중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전 품종의 수출액은 조금씩 증가하였다. 이전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상품의 안정성을 걱정했다. 외신 역시 중국에서 생산된 음식의 안전성 문제를 보도하였다. 하지만 중・한 FTA 발효 후 중국정부의 음식과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결방안을 실시하여 세계시장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인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Table 24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액

단위: 만 달러

년도	곡류종류	과자류	다른 농산물	당류	면류	과실류
2010	16.528	4.687	7.846	6.517	6.352	5.365
2011	31.278	6.305	20.522	7.935	8.074	6.545
2012	9.432	6.540	20.874	6.426	8.110	7.335
2013	30.962	6.899	20.853	6.959	8.440	7.562

Collection @ kmou

2014	20.921	7.290	22.327	6.437	8.669	7.358
2015	17.335	7.331	24.139	5.509	8.634	7.259
2016	16.416	7.781	24.776	7.635	8.863	7.260

자료: 한국 농수산 식품수출 지원정보

중국은 농산물 수입액이 비교적 적다. 이는 중국인이 소비하는 상품이 중국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함을 뜻한다. 그리고 일부 품목의 성장 원인은 중국인들이 유기농 상품의 장점을 깨닫고 유기농 농산물과 고품질의 농산물을 찾기 때문이다. Table 23의 과자류와 기타 제조상품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은 환경오염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특히 중국 국내의 공기오염은 매우 심하여 중국인들은 가족과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국외의 유기농 식품과 고급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4.2.2 중·한 FTA 발효 전후 농산물의 국가별 수출 현황

중·한 FTA가 2015년 발효된 전후 수출입이 5개 국가에서 비교적 많다는 것을 앞에서 언급했다. 자료조사의 결과는 표에서 볼 수 있다. 일본, 중국, 미국은 계속해서 상위 3위까지 차지하고 4번째 국가(지역)에 변동이 있었다. 2011년에 4위는 홍콩이었는데 2012년부터 베트남으로 바뀌었다. 5위는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이 차지했지만 이전에는 홍콩, 태국, 러시아 등의 국가였다. 중·한 FTA 발효후에 농산물 수출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향후 몇 년 뒤에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농산물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able 25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국 순위

단위: 백만 달러

년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0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러시아
	188.264	78.736	51.881	24.374	23.569
2011	일본	중국	미국	홍콩	태국
	237.422	138.004	59.981	30.552	29.656
2012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238.901	127.851	66.396	33.844	31.412
2013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Collection @ kmou

	210.151	131.793	74.017	42.383	38.293
2014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208.110	129.635	81.132	43.492	40.566
2015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183.274	136.133	85.986	46.090	33.535
2016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189.585	147.405	95.829	50.045	41.568

자료: 한국 농수산 식품수출 지원정보

한국의 농산물 수입 원산지국은 Table 24에 있는데. 중·한 FTA 발효 전까지 한국 농산물 수입 최대국은 미국이었다. 2014년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중·한 FTA 발효후 조금씩 감소했다. Table 24에 따르면 중국이 2위로 고정되어있고 2013년을 제외면 호주가 3위를 차지했고, 4위와 5위는 일반적으로 브라질, 베트남,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의 국가가 차지했다.

Table 26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국 순위

단위: 백만 달러

년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0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595.968	432.322	221.269	151.838	106.279
2011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770.616	523.971	282.010	170.950	161.883
2012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671.158	529.659	288.716	222.582	118.269
2013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616.308	573.911	287.583	244.893	110.847
2014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베트남
	801.132	595.845	255.346	200.946	136.499
2015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베트남
	724.679	559.251	249.314	220.821	127.585
2016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베트남
	709.522	565.125	265.068	208.478	138.811

자료: 한국 농수산 식품수출 지원정보

Collection @ kmou

중국 농산물의 무역량이 비교적 큰 다섯 종의 중국 농산물을 선택하여, 이 농산물의 주요 5대 수출입 국가와 무역금액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중·한 FTA 2015년 발효 전까지 중국 찻잎의 최대 수출국은 모로코, 쌀은 한국, 대파는 인도네시아, 대두박은 일본, 버섯통조림은 러시아였다. 중·한 FTA 발효후까지 이 5가지 품종의 제1 수출 국가는 변동이 없었지만 2위와 3위의 수출 국가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한국은 중국 쌀의 최대 수출국이고 그 외에 버섯 통조림, 대두박 등 품목의 수출량 역시 비교적 많다. 중·한 FTA 발효 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쌀 수출액은 1억2.910만 달러, 2위인 대일본 수출은 3,260만 달러, 1위와 2위의 차이가 약 4배가 난다.

비록 한국이 중국에 대한 쌀 수입량이 날로 감소하지만 중·한 FTA 발효 후 한국은 여전히 중국의 최대의 쌀 수출 국가일 것이라 예측된다.

4.2.3 중·한 FTA와 농산물의 무역변화 추세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로 농산물 무역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2년의 양국의 무역액은 50억 달러, 중·한 FTA 발효 후 무역액은 2,273억 달러로 매년 성장률이 3.4%에 이르렀다. 1999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옥수수 수입국,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밀 수출시장이었다. 중국의 수산품, 채소, 곡물, 과일, 플로레타, 모피 등의 농산물이 한국 수입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한중 농업무역의 발전 속도는 비교적 안정되어 2002년부터 발전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부터 외교관계를 맺었다. 당시의 농산물 무역 총액은 10.4억 달러였었고, 1997년에는 13.7억 달러로 5년의 무역총액이 겨우 3.3%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2002년은 양국간 농업무역의 전환점이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농업무역 총액은 20.5억 달러로 92.3%가 증가하였고,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다 한중 농업무역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중국의 각종 농산물이 한국의 농업시장을 점거했다. 2005년 한국이 수입한 중국의

Collection @ kmou

농산물 총액은 28.7억 달러로 2004년에 비해 30.3% 증가했다.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한국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이 되었다. 2007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쌀, 옥수수, 야채 등의 농산물 수량이 많이 증가하였고, 그 중 옥수수의 수입량 증가가 가장 많았다. 이 후 한국 농산물 시장에서 중국 농산물이 점차 많아지고 종류 또한 계속해서 증가했다. 그리고 2015년 중·한 FTA를 체결하였다. 중·한 FTA 체결시 양국의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양허 품종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5년, 10년, 15년의 시간을 두고 이러한 민감 품목들에 대해서도 점차 양허를 늘려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한중 양국 FTA이후 농산물 무역은 여전히 확대 중이다.

중국은 농업대국이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시장이다. 한중 교역 이후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했다. 한중 농산물 무역은 오래 지속될 추세이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규모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농산물 시장은 점차 개방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교역 역시 점차 발전했다. 2011년 부터 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41.7억 달러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2014년 중국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액은 최고 48.6억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액이 감소하고 수출 증가 속도 또한 느려졌다.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농산물 시장경쟁력은 매우 높아서 한국정부는 농산물 부문에 무역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쌀, 밀 등 민감 농산품의 개방이 힘들었다. 중·한 FTA 체결 이전에 양국의 협상에서 한국과 중국은 농산물 부문의 문제가 비교적 민감하여 협상 시간이 비교적 길었다. 2015년 중·한 FTA를 체결한 후 농산물 부문의 양허 속도 또한 비교적 느린 편이다.

중·한 FTA체결 이후의 결과를 보면 2016년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2015년의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는 한국 농업이 한국의 중심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농산물의 해외 의존도는 원래 높았다.

Collection @ kmou

제 5 장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방안

앞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과 중·한 FTA 내용, 양국간 비교우위 농산물 종류 등을 분석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5.1 농업생산 규모 확대와 생산수준 강화

한중 간의 거리는 가깝다. 중국 농업은 한국 농업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협정의 체결은 반드시 중국 농업무역에 장차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최근 몇 년 한국은 수입 농산물에 맞춰 많은 장벽을 만들었다. 이 또한 중국 농업무역이 불가피하게 직면해야 하는 도전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다음과 생산부문의 대책은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 사겨야할 것이다.

첫째, 농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농업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야한다. 오랫동안 중국은 한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이 원료 등 기초 농산물이 주였고 가공 농산물의 수출 규모는 매우 작았다. 중국농업이 한국 시장으로 차츰 진입, 더욱 심화된 국제분업 및 한국의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높은 기준에 따라 우리는 농산물 생산기술에 혁신을 이루고 농업구조를 조정하여야 농업의 선진화를 가속화하여 중국의 농산물 품질을 높이고 더 큰 시장을 점유하고 더욱 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둘째, 농산물 수출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경지면적이 매우 넓고, 농산물 종류도 많으며, 농업노동력 또한 싸다. 중국 농업은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2016년 중국의 한국에 대한 농

Collection @ kmou

산물 수출은 이미 5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미래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유무역협정 체제하에 중국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한층 성장할 것이 분명함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산품, 야채, 과일과 옥수수, 밀, 쌀 및 콩류 등 작물의 규모가 신속히 증가할 것이다.

셋째, 농업기업의 진출,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 자유무역 지역의 설립은 중국농업기업이 진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사슬에 따르면 한국기업은 선진 생산기술과 생산경험을 가져 전체 산업사슬 구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기업은 발전 수준이 아직 높지 않아 생산제조의 말단에 위치한다.

중국기업은 한국기업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배워 스스로의 생산기술 수준을 높여야한다. 그리하여 핵심 경쟁력을 높여 진출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자유무역 지역의 설립은 한중 양국 기업의 상호합작 및 기술교류를 통해 더욱 많은 기업이 진출하는 좋은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5.2 중·한 FTA의 관세장벽 감소 및 농산물 품질 제고

첫째, 한국의 농업은 비교열위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힘쓴다. 수입 농산물에 거액의 관세를 징수하여 한국은 세계에서 농산물에 대한 보호관세 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이다.

한국 농산물의 최고세율은 887%로, 세율이 100%가 넘는 상품은 전체 농산물의 5.3%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쌀 수입에 관세화 조치를 취해이 정책에 대해 세계 각 무역 대국들은 모두 관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발전에 장애물이라 여겼다.

둘째, 비록 FTA 체결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점진적으로 관세의 제한을 개방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농업의 보호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기술장벽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이것의 종류는 매우 많아. 관련 상품의 품질, 위생, 안전, 환경보호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은폐

Collection @ kmou

성 역시 전통적인 관세장벽을 초과하여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 비록 중국의 상품이 가격우위가 있지만 품질과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외국과 일정 차이가 있다. 그래서 쉽게 국외에서 중국상품에 대한 제재의 변명이 되고있다. 그 예로 산동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2200톤의 마늘을 한국 농수산품 유통회사가 반품시켰는데, 상품이 한국의 녹색상품 기술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중국에서 수출되는 식품안전의 검사기준은 비교적 낮아 한중 무역간에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한국의 구체적인 농산물 기술표준을 이해하여 대응하고 한국의 기술법규에 적응하고 기술표준과 합격평가 제도를 세워 상호간에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기업 및 각 농산물 부문에 국제표준을 채택하도록 격려하고, 건강안전식품의 표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상관 법률을 시행하여 수출하는 농산물의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강력한 기술무역 장벽에 직면해 있고 해결방안은 기업의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 농산물 생산기초를 만들고, 농업 생산과정 중의 화학비료와 농약 등 투입품 사용을 엄격히 감독하여 농산물의 오염을 막고, 품질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기업은 환경보호 생산시스템을 만들어 녹색상품을 생산하고, 녹색경영을 진행하고, 상품의 환경보호화 위생표준을 높여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양국의 무역량 증가에 따라, 한중무역의 마찰 또한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양국 정부는 농산물 무역위원회를 설립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쌍방의 문제점을 즉시 해결, 처리하여야한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지침에 따라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양국 무역 중 농산물 과학기술의 투입증대와 수출시스템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 농산물의 품질이 매우 낮아 비교적 큰 기술성장이 필요하다. 중국은 농산물의 과학기술 투입을 높이고, 수출시스템과 방법의 최적화를 이루어 정부가 약세 농산물을 더욱 부양하고, 자원이용에 전면적인

Collection @ kmou

계획을 세우고, 생산을 다양화하고 녹색 농산물을 품질화해야한다.

양국 무역 중 끊임없는 혁신과 인터넷 마켓의 개장이 필요하다. 소형의 인터넷 기술 플랫폼을 만들어 각지의 농산물 기업이 유효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야한다. 농업과 인터넷 기술에서 중국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한국의 우수 농산물의 경험을 배워 농업기업 생산 및 경영자의 전문교육을 진행하여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야한다. 동시에 직접적으로 소비자에 초점을 맞춰 무역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예비창고를 만들어 가공판매 수출을 국제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완벽한 농산물 검증규칙을 만들어 해관이 엄격히 규칙을 시행하게 하여 상품 불량으로 발생하는 반품의 상황을 방지하여 중국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인식을 '명품중국'으로 확립시켜야한다.

중국 국내 농산물 기업에 명확하고 유효한 농업 보조금을 주고 국내 농산물 생산기업의 발전을 격려해서 국민 생산 경영 농산물의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5.3 중국의 특수 농산업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중국은 국토가 넓어 각지의 기후, 토지, 생태환경 등이 서로 다르다. 중국 동부 연안 지역 기후는 습기가 많고, 토지 자원이 비교적 적고, 노동력의 질이 높으며 기술 수준이 높아, 찻잎, 야채, 과일, 수산품 등 노동 밀집형 농산물과 가공 유제품류, 육류, 당류, 동식물 기름 등 기술 밀집형 농산물이 주를 이룬다. 반면 서부지역은 일조시간이 길고 일교차가 크며 토지자원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많아 목화생산, 과일 등 농산물 재배가 주를 이루고, 동북지역은 토지가 광활하고 비옥하여 큰 면적에서 곡물이나 콩류 등 토지 밀집형 농산물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중부지역의 각 성에서는 각 지역의 노동자원과 기술자원 그리고 토지자원을 바탕으로 곡물, 찻잎, 과일, 야채, 달걀, 육류 등의 농산물을 생산한다.

Collection @ kmou

비록 중국은 농업 대국이지만 중국의 농산물 무역은 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했다. 농산물 무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수출시장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은 농업 생산에 힘을 쏟아야 한다. 먼저 중국의 매년 농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공업과 제3차 산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비교해 너무 적다. 자본의 부족은 중국 농업이 더딘 발전을 초래한다. 농산물 무역에서 비교우위 역시 감소한다.

앞으로 농업의 자본 투입을 증가하여 농업 발전에 재정, 여신, 세수 등의 방면에 혜택을 제공해야한다. 둘째로 중국 농업 발전의 기술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차이가 난다. 마지막으로 계속적인 중국 농업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삼농정책'을 지지하고 개선하여 농민에 대한 보조정책을 늘리고, 농민의 경제주체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 경제체제제도를 심화하고, 농민의 토지사용권을 보호하고, 농민의 생산 적극성을 향상시키고, 농업발전을 촉진시켜, 농업의 비교우위를 향상 시켜야한다.

중국 농산물 무역이 노동 밀집형 상품무역으로 비교우위를 가진 것을 기초로 하여 기술 밀집형 농산물의 수출확대와 기술 밀집형 농산물 무역의 비교우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중국의 토지 밀집형 농산물 무역의 비교우위 하락도는 비교적 크다. 중국 경지 총면적은 세계 3위지만 인당 평균 경지면적은 도리어 적다. 게다가 근래 중국의 일부 토지자원이 못 쓰게 되어 경지자원이 심각하게 줄어들있다. 곡물 등 토지 밀집형 농산물 재배 면적도 감소되었다.

중국 노동 밀집형 농산물무역의 비교우위는 명확하다. 중국은 대량의 값싼 농촌 잉여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노동력 가격의 상승에 따라 풍부한 노동력에 의지하던 중국의 농업 방식을 이어가기 어렵게 되어, 기술 밀집형 농업의 생산과 수출이 중점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식품안전을 중시함에 따라 농산물의 시장진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 농산물 무역의 비교우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 농산물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먼저, 중국 농산물의 생산기준을 높이고, 농

Collection @ kmou

약의 사용량을 줄이고 소비자의 수요선호에 따라 다른 등급, 특징의 고품질 상품을 생산해야한다. 둘째, 엄경한 상품 포장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농산물이 상하지 않고 동시에 상품 포장 규격이 국제표준과 수입국의 요구에 부합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검사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야한다. 검사 표준을 강화하여 수출상품이 반드시 검사에 합격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RMB 환율이 계속해서 평가절상 되어 중국 농산물 수출 무역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중국 농산물 수출은 농업생산 방면에서 노동 투입 비중이 비교적 큰 노동 밀집형이 주가 된다. 이는 중국 농산물의 생산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한다. 농업 산업화는 규모화, 집약화의 생산조직 형태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 가공 그리고 소비의 유기적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하여 일체화 경영의 농업생산 경영 조직 방식을 실행하여 단위 농산물의 생산원가를 낮추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생산을 구조적으로는 지역경제가 지원하고, 지역자원의 비교우위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생산기지를 안배 해야 한다. 규모화 측면에서는 농민들의 생활, 농산물 가공과 운송판매의 시스템을 조직하여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발생 시키도록 한다. 동시에 농업의 규모화 생산 방식은 선진 농업생산기술을 채택하고, 관리기술 인재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단위 생산원가를 낮추어 중국 농산물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농산물의 비교우위를 증가시키도록 한다.

Collection @ kmou

제 6 장 결론

지역 경제 협력은 점점 더 많은 국가의 선택이 되고 있다. 이미 효력 발생한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이 전형적인 예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와 그 변화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우선, 다자간 무역협상은 협상자가 많고 무역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관련된 이익이 복잡하고 협상의 진도도 상대적으로 느리다. 반면에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그 협상 자가 적기 때문에 그 중의 이해관계도 비교적 간단하다. 그래서 다자간 무역에 비해 무역 협정을 쉽게 이룰 수 있다. 게다가 현존의 일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잘 돌아가고 있으며, 국제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더욱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에 가입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협정의 회원국은 주로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국가나 지역들이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을 설립한 후 지리적 장점을 쉽게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을 설립한 후에 그 지역 내의 회원국의 관련 산업에 충격과 기회를 가져다주고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것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단일 국가보다 자유무역협정이 하나의 전체로서 경제 위기시 악영향의 확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지역경제 일체화가 전 세계적으로 신속히 발전되고 이 추세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중·한 양국은 이 지역의 경제 무역 대국으로서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설립하여 양국의 경제와 무역 관계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 내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일체화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30일 중·한 양국정부는 중·한 FTA를 발효시켰다.

Collection @ kmou

경지 면적이 좁고 식량 자급도가 낮으므로 한국의 농업은 약한 산업으로 여러 가지 정책 혜택을 줄곧 받아왔다. 중·한 수교 이후 중·한 농산품 무역에 있어서 중국은 절대 우위를 차지해 왔다.

본고는 주로 양국 농산품의 무역 현황을 분석하고 중·한 FTA체결 이후 양국 농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여 양국의 대처 방안과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확대 추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은 중·한간의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 중·한 농산품 무역에 대한 경쟁력의 변동 상황 및 경쟁력이 미치는 영향을 수출경합지수 비교 분석, 국제시장 점유율 분석, 무역 경쟁력 수치 분석, 수출경합지수 비교 분석과 현시비교우위 지수의 방법을 통해 분석 해보았다 .

한중 수교 25년 동안 중·한 관계는 끊임없이 진보했고, 경제 무역 합작은 강화되어 이미 큰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 본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중·한 농산품 무역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농산품 문제는 양국 FTA 협상의 민감한 의제가 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수출 상품의 고세율로 한중 농산품의 무역성장을 일부 제한하였고, 한국 농산품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중국에 대한 수출 성장의 장애물이 되었다. 중·한 농산품 무역 규모의 확대를 위해 농산물 품질을 높이고 양국은 상호 시장 소비 변화에 대응해 농산품 무역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농업교류 협력 강화, 상호보완적인 농산품 수출 확대, 중국 농업의 규모화 생산 추진과 집약화, 농산품 가격 경쟁력을 비가격 경쟁력으로 전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FTA의 확대 발전에서 한미 FTA 농산품 개방 조항을 본보기로 삼아 합리적인 중·한 FTA협상 전략을 설립해야한다.

중·한 양국이 지리으로 인접해 있고, 정서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더우기 식문화와 소비성향이 비슷하며 농업의 생산측면에서도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까지 활발하게 무역을 하면서, 한중의 무역액도 급속히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더우기 중·한 FTA를 계기로 중·한 양국의 농산물 교역시장이 개방되면서

Collection @ kmou

양국간 농산물 교역이 더욱 확대되었고, 중국의 풍부한 자원 및 거대한 투자시장, 값이 싼 노동력은 중·한 양국 간의 농산물 교역으로 보다 나은 농업의 환경 개선과 농업의 생산성 및 자원이용의 효율을 점차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중·한 양국 간의 교역을 통한 경제적인 상호의존도는 양국의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며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1945
한국해양대학교

Collection @ kmou

참고문헌

[한국 자료]

남수중, 조유리, 2015. *한 중 발효가 충남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남수중・조유리, 2015. *한중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량슈앙, 2015. *한중 FTA 가 중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민경실, 제현정, 2016. *한중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중국농산물의 무역동향*.

한중경제포럼, 2017. *중국 농산물 무역현황에 미래의 분석*.

한중FTA, 2015. *"한・중 FTA 농업 분야 평가와 시사점"*.

[외국 자료]

牛盾, 2009. *中国农产品贸易发展三十年*. 中华人民共和国农业部

施锦芳, 闫飞虎, 2016. *金砖五国承接离岸服务外包竞争力及影响因素分析*.

农业部农业贸易促进中心, 2015. *中国农产品贸易变化趋势特征分析*.

农业部对外经济合作中心, 2017. *中国农产品和农业企业国际竞争力研究*.

中国商务部, 2016. *韩国进出口及中韩双边贸易情况*.

中国商务部, 2007. *2016年中国农产品进出口统计报告*.

农产品期货网, 2017. *中国农产品贸易影响因素分析及趋势展望*.

农产品期货网, 2017. *中国农产品贸易影响因素分析及趋势展望*.

中国经济网, 2013. *2005年汇改以来人民币兑美元走势大事记*.

人民日报. 2013. *改革开放中国经济发展成就*.

华中农业大学, 2014. *华中农业大学学报*, 109期.

Collection @ kmou

中国农业出版社, 2015. *世界农业.*

AFP, 1999. *（U.S.-China Agriculture &Food Partnership）*

[사이트 자료]

https://www.wto.org/

http://www.fao.org/

http://www.un.org/zh/databases/

http://www.kita.org/

https://eiec.kdi.re.kr

http://www.wenku1.com/

http://www.china.com.cn/

http://www.mofcom.gov.cn/

http://www.customs.gov.cn/

http://data.stats.gov.cn/

http://www.agri.cn/

http://www.moa.gov.cn/

https://www.naver.com/

https://www.google.com/

Collection @ kmou